금수강산

1

주체110(2021)
루계 제377호 월간

 ISSN 1727-9062

표지: 새해의 기쁨은 동심에도

새해를 맞으며 어머니와 함께 축등을 만드는 어린이.

그의 얼굴에는 한살 더 잡히는 새해에 자기의 재능을 더 크게 자래워 어머니의 기쁨, 가정의 기쁨이 되려는 동심의 즐거운 세계가 비껴있다.

본사기자 방은심

뒤표지: 금강산 구정봉의 겨울

편집: 리경훈

차 례

자력갱생
14

31

36

39

56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포여러분, 새해 주체110(2021)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금수강산》편집부는 기쁨과 환희속에 새해를 맞는 동포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고보니 우리는 여러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정 잊을수 없습니다. 조국에서 맞는 눈은 이역땅에서 맞을 때보다 따스하다고, 그래서 생각이 더 깊어진다고 말하던 동포들.

그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언제나 조국이 자리잡고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조국을 잊지 않는 그 목소리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진정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새기고 애국사업에 자기들의 깨끗한 마음과 지성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동포들은 참으로 그 수를 헤아릴수 없습니다.

지난해 동포들은 악성전염병이 생명을 위협하며 세계를 휩쓰는 속에서도 서로서로 도와주고 마음을 합쳐 조국과 동포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찾아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우리는 조국에 마음의 처마를 잇고 사는 동포들과 언제나 한뜻이 되여 힘과 용기가 되는 글과 사진들을 잡지 《금수강산》에 싣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서 있은 크고 작은 소식들을 페지마다 실어가는데서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민족을 위한 길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더욱더 휘황한 조국의 래일을 마중해갈것입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동포여러분의 가정들마다에 기쁨만이 차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모두가 건강하신 몸으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2020년, 인민은 무엇을 새겼는가

2020년에 인류는 참혹한 재난을 겪었다.

세계적범위에서 악성비루스의 전파로 백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가 침체되였으며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다.

하다면 조국의 지나온 한해는 어떠하였는가.

년초부터 세계를 휩쓸며 대재앙으로 번진 악성전염병이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이 조국의 여러 지역을 강타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도 난관을 조성하였다.

엄혹한 현실앞에서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선제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악성비루스에 대하여 관심하기 썩 전인 지난해 1월 조국은 선견지명으로 이 전염병을 세계적인 재난을 일으킬수 있는 엄중한 문제로 간주하고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을 완전히 차단봉쇄하였다.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확보하고 강력한 국가비상방역조치들도 시시각각 취하였다.

《비루스와의 전쟁》과 자연과의 싸움에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것을 제일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회의들을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의 중요의정으로 인민의 건강과 생명안전문제를 토의하시고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몇번이고 강조하군 하시였다. 운전대를 잡으시고 피해지역을 찾으시여서는 인민의 안전부터 물어주시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보고를 들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며 피해복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바라보고있을것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에 의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하여 한순간이라도 락심하게 하거나 생활상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할수 없는것이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멸사복무이다.

아직은 태풍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함경남도를 찾으시여서는 10월 10일(당창건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수많은 피해지역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며 수도당원들에게 한자한자 공개서한을 쓰신 그이이시다.

위대한 우리의 인민을 위하여.

폭우와 큰물, 태풍은 여러 나라들이 겪었지만 조국에서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피해복구현장으로 달려나가고 온 나라가 피해지역 인민들을 지원하였으며 집을 잃은 수재민들은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청사들에서 생활하고 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는 특기할 모습들이 펼쳐졌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

삼지연시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

시, 함경남북도를 비롯한 피해지역들에 새 마을, 새 집들이 건설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차례졌다.

피해복구에 나라의 모든 힘이 집중된 속에서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밑천이 될 창조물들이 전국각지에서 속속 일떠섰고 현대화되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의 고산과일가공공장,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이천군민발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평양향료공장…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로력적성과들로 조국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성대히 경축하였다. 열병식과 경축대회 및 군중시위, 홰불행진을 비롯한 특색있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하여 조국은 일심단결과 인민의 불가항력을 과시하였다.

당창건절을 경축한 인민은 앙양된 기세를 늦춤이 없이 당제8차대회를 향하여 80일전투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었다.

례사로운 환경이 아닌 최악의 조건에서 이룩한 승리의 비결과 진리는 무엇인가.

지난해 조국이 걸어온 행로는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이를 인민사수전으로 전환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력사의 순간에 지나지 않을 1년, 그 기간에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렵지 않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희망찬 앞날만이 온다는것을 확신하였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

본사기자 변진혁

일화

태풍이 지난 뒤

400세대와 800세대

지난해 8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를 찾으시였다.

현지에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모든 피해복구대책을 세워주시면서 침수되고 무너진 집자리들에 새 집을 지어줄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처음 일군들은 그이께 침수된 800세대의 살림집가운데서 400세대만 새로 건설하고 나머지 400세대는 개건보수하자는 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400세대만이 아니라 800세대를 모두 헐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이 1동 2세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독집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고 농장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그이의 조치에는 피해지역 인민들 단 한사람에게라도 사소한 아쉬움이 없게 하시려는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가 응축되여있다.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10월 건설중에 있는 강원도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였을 때 하신 말씀의 한 대목이다.

현지에 도착하시여 현재 군에 새로 건설하는 읍지구 소층살림집과 리지역 단층살림집 근 1 000세대 건설이 88%계선까지 진척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어 현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군당위원장에게 군내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문의하시였다.

일군으로부터 살림집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는것을 보고 현지주민들이 밥짓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 좋다고 했다는 반영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인민들의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피해복구건설투쟁에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관점과 원칙에 의해 전개되여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우리 당이 잘한 일

지난해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새로 일떠선 농촌마을을 바라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수도 있는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는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잘 건설했다고 인민군군인들의 노력을 거듭 평가해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이곳 강북리의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보시고나서 그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뿌듯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축복도 해주시였다.

본사기자

따뜻한 그 품이 있기에

우리 은파군은 자랑할만 한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평범한 고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온 나라가 아는 고장이 되였습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군에 찾아오시여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기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난해 8월 6일이였습니다.

당시 며칠동안 내린 폭우와 태풍으로 하여 대청리의 많은 농경지들이 침수되고 살림집들이 무너지였습니다. 피해가 너무 막심하여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움에 모대길 때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먼저 인민들의 살림집피해정형부터 물어보시였습니다. 순간 저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쳤습니다. 우리 원수님 마음속에는 오직 인민만이 꽉 차있구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제가 격정에 겨워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다 안다고,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들로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필요한 가장집물을 일식으로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고,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격려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우선 살림집을 빨리 지어 집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나와보겠다고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 물천지에 그이를 어떻게 모시랴 하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막 조여왔습니다. 좋은 날, 좋은 길이 아닌 궂은날, 험한 길에 모셔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걸어주신 그길로 우리 군을 찾으시여 피해정형을 료해하시였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저를 도와줄데 대해 강조하시였다고 합니다. 그이의 믿음을 받아안고 제가 군안의 인민들과 함께 피해복구를 다그치던 다음날이였습니다. 뜻밖에도 그이께서 또다시 은파군을 찾아오시였습니다.

제가 올리는 인사를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저를 치하해주시며 피해복구사업의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 기회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자고, 대청리를 모두가 부러워하게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가 되게 일떠세우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이제는 피해지역으로 가보자고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저도모르게 그이의 앞을 막아나섰습니다.

《안됩니다. 원수님, 길이 험해 가실수 없습니다. 인민들이 저를 욕합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길이 험해도 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먼저 앞서시는것이였습니다. 진창길이여서 그이를 모신 차는 몇번이나 멈춰서군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난신고끝에 그이께서 타신 차가 대청리의 어느 한 마을어구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그이께서 오시였다는 소식을 알게 된 농장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농장원들의 인사를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살림집피해정형을 알아보시다가 문득 농장원들이 어떤 집을 좋아하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습니다.

농장원들이 독집을 좋아한다고 무랍없이 말씀올리였는데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보라구, 농장원들은 독집을 좋아한다고, 그들이 바라는대로 1동 1세대로 지어주자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무리 품이 많이 들더라도 농민들의 의사대로 살림집설계를 해주자고, 설계가 완성된 다음에도 그들의 심사를 꼭 받아서 지어주자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시간이 퍽 지나 그이께서 떠나시였는데 글쎄 차가 얼마 못가서 진창길에서 미끄러져내려 논두렁에 빠지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주변의 농장원들이 달려와 한참이나 신고해서야 겨우 차를 뽑아낼수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다정히 웃으시면서 농장원들을 도와주자고 왔는데 페를 끼쳤다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불같은 사랑, 뜨거운 정은 그후에도 계속 이어지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피해복구기간 우리 은파군과 대청리인민들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쓰시며 의약품과 식료품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보내준 많은 식량과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세대들에서 마련해준 가장집물들과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이 새로 일떠선 집집마다에 안겨졌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은파땅의 인민들은 자기들이 당중앙뜨락과 운명을 잇고 산다는것을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습니다. 편지에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인민이 아니라 보답을 하는 인민이 되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군의 책임일군으로서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온갖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전설같은 이야기를 대를 이어 전해가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은파군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살기 좋은 곳으로 전변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조선로동당 황해북도
은파군위원회 위원장 궁혜영

국풍으로 보는 조국

언제인가 조국을 찾았던 한 해외동포는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은바 있다.

《조국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일상적으로 오고가는것이 사랑과 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인민들은 비록 번쩍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정신적재부가 풍족한 인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덕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나라, 이것은 인간의 본태가 살아숨쉬는 참으로 인간다운 나라-우리 조국에만 어울리는 부름이다.》

국가와 사회, 집단의 리익속에 자신의 리익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국풍으로 되고있는 조국.

수천척지하막장에서 헌신하는 탄부들과 외진 산골이나 섬마을학교에 자진하여 달려가는 교원들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많다.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고 부모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준 처녀들, 남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 생명까지도 바치는 소행을 비롯하여 미덕이 사회의 풍조로, 국풍으로 되고있는것이 조국의 모습이다.

지난해 9월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에로 수도의 당원들을 부르시는 공개서한에서 나라의 모든 지역이 항상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풍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할수 있다고 쓰시였다.

령도자의 부름을 받들고 수도의 많은 당원들이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달려나가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며 피해복구사업에 앞장섰다. 수도의 각계층 인민들은 많은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정든 고향집을 떠나 피해복구지역에 달려나가 그곳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페도 끼치지 않고 물

연단

생산열의, 지닌 임무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

새해가 밝아왔다.

충성의 8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조국인민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고있다.

특히 우리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러하다.

지난해 우리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국내원료와 자재에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해내는 다방면적인 생산체계를 갖춘 공업구조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 나날 순천린비료공장이 준공되였으며 여러 화학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였다.

새해에 우리는 이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화학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 등 화학공업의 토대를 더욱 다져나갈것이다.

화학공업성 국장 고명성

더 높은 전력생산으로

지난해 80일전투기간 전력생산성과는 편일 확대되였다.

우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만 놓고보아도 전력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였다.

전력생산은 발전설비들의 대보수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80일전투기간에 여러 호기의 보이라대보수를 앞당겨 결속하고 발전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련합기업소의 다른 직장들에서도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재자원화사업을 힘있게 벌려 백색연재에 의한 단열벽돌을 생산하여 이것으로 보이라밀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진효률을 98%로 올리였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생산자대중의 열의가 드높은데 있었다.

이러한 열의는 새해에도 전력증산의 동음으로 이어질것이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설비 보수사업소 지배인 김영철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

충성의 8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당 제8차대회로 향한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하고보니 흘러간 나날을 돌이켜보게 된다.

지난해에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전파로 하여 지구상 여기저기서 사망자가 급증하였고 자연재해가 련이어 들이닥쳐 농사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그러나 우리 농장에서는 태풍피해를 최소화하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승리는 전투전에 이루어진다고 과학적인 타산밑에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거름준비, 자급비료준비 등 농사차비를 착실히 하면서 지력을 높여온 결과였다.

땅을 속이지 못하는것처럼 무슨 일에서나 정성을 기울여야 좋은 결실을 거둘수 있다.

우리는 새해에도 과학농사를 앞세우고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겠다.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 관리위원장 김동삼

인민을 위한 일거리

흔히 새해는 부푸는 희망을 안고 한해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의로 시작되군 한다.

지난해 8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며 우리가 찾게 되는것은 인민을 위한 일거리를 찾아하면 할수록 인민생활이 더 윤택해진다는것이다.

우리 사업소는 수십년전부터 구역안의 주민들의 땔감을 보장하고있다.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실현된 로력절약형, 원가절약형구멍탄공장을 일떠세워 생산을 해마다 늘여왔다.

그 나날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2.16과학기술상을 비롯하여 발명, 창의고안, 새기술도입증서를 받은것만도 80여건에 달한다.

사업소에서는 연재나 페수를 재자원화하여 주민용땔감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에서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공업화하기 위한 토대도 닦아놓고있다.

많은 일거리들을 찾아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것이 우리가 지닌 의무이다.

락랑구역연료사업소 지배인 김희옥

과 공기만을 마시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안겨줄 열의로 가슴을 불태운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 전투원들과 인민군장병들에 의해 피해지역들에서는 전화위복을 맞이하였다.

악성비루스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속에서도 군민의 단합된 힘과 행동의 일치성으로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이 담보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일제를 전률케 한 투사들의 그 불굴의 넋이 낳은 자력갱생의 전통,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위하는 원군미풍,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기풍 등이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넘쳐나고있다.

되새겨볼수록 조국의 국풍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온 나라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감동적인 화폭이 아닐수 없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국풍이 있기에 조국은 언제나 미래를 락관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세멘트증산으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능력이 가장 큰 세멘트생산기지이다.

기업소는 조업하여 지난 수십년동안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보장하여왔다.

지난해에도 기업소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여 8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업소의 일군인 윤성철은 《지난해에 년간생산계획을 근 두달이나 앞당겨 완수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새해에도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련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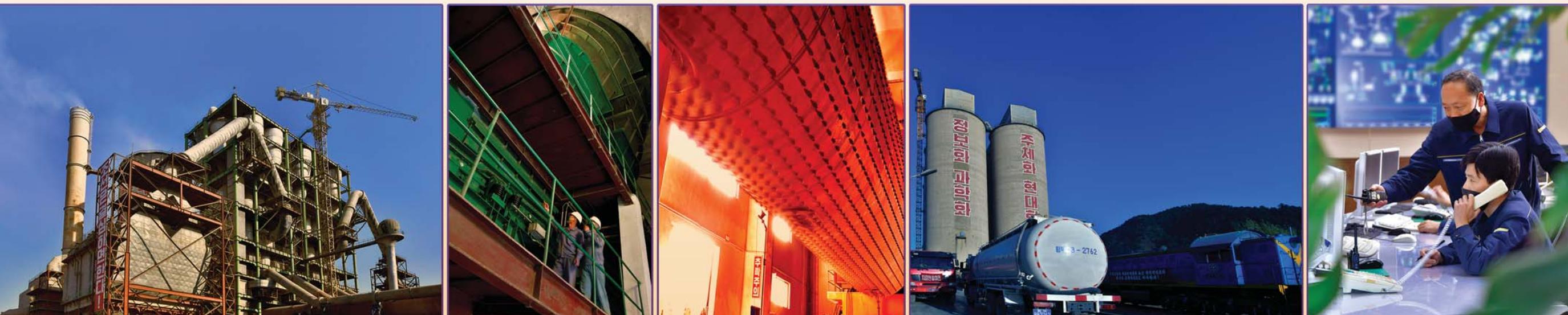
날로 늘어나는 세멘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소에서는 새 기술을 생산공정들에 적극 도입하고있으며 기술관리를 보다 짜고들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기업소에서는 내화벽돌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소성계통에서 중유를 쓰지 않고 착화하는 새로운 공정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위한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벌리는 한편 부가물첨가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매일 수백t의 세멘트를 증산하고있다.

기술자들과 제진직장의 종업원들은 기술혁신으로 생산공정들에서 나오는 석탄과 크링카, 세멘트먼지들을 회수하여 해당 공정들에 되돌려보내주도록 함으로써 한g의 세멘트라도 더 생산하도록 하였다.

설비들의 만가동이자 세멘트증산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설비들에 대한 순회점검과 자검자수, 보수를 철저히 하여 사소한 고장요소도 제때에 퇴치해나가고있다.

세멘트생산의 주원료를 맡은 상원석회석광산에서는 지형조건에 맞게 채굴방법을 끊임없이 갱신하여 석회석생산을 부쩍 늘이고있다. 뿐만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들을 제작하여 세멘트원료보장에서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삼청광산의 로동자들은 경쟁열풍을 일으켜 교대당 실적을 부쩍 높이고있으며 일출봉광산, 화천탄광에서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지금 생산능력확장공사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넓어지는 대지

조국에서 간석지건설이 추진되는 속에 지난해 9월 안석간석지가 준공되였다.

간석지는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이 온천군 안석리로부터 석치리까지의 수십리에 달하는 제방을 막아 3년 남짓한 기간에 완성하였다.

그들은 이 건설로 천수백정보의 새땅을 얻어냈다.

건설은 120여만m^3의 성토와 30여만m^3의 장석공사 등을 진행하여 방조제를 쌓아야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였다.

공사량은 방대하였지만 건설자들은 계획한 날자에 무조건 건설을 완공하기 위해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로력과 설비, 자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해나갔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기승을 부려 토량류실이 많아지고 지속되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으로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뚫고나갔다.

건설자들은 과학연구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륙상공법과 해상공법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선진적인 간석지제방건설공법들을 활용하여 겨울조건에서도 매일 수십m씩 제방을 쌓아나갔다.

또한 륜전기재들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는데 맞게 감탕경화제와 전기식발파법, 새로운 마감막이공법을 비롯한 합리적인 공법들을 연구도입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여러개의 취수 및 배수문공사도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이곳 사업소지배인 한원호는 《지금까지 수많은 간석지를 건설하면서 우리가 얻은 새땅만 해도 수천정보가 된다. 이렇게 공사가 완공될 때마다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건설자로서의 보람과 긍지가 남다르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이곳에서는 내부망공사가 진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자 연 흐 름 식 물 길 들

조국에서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이 계획성있게 추진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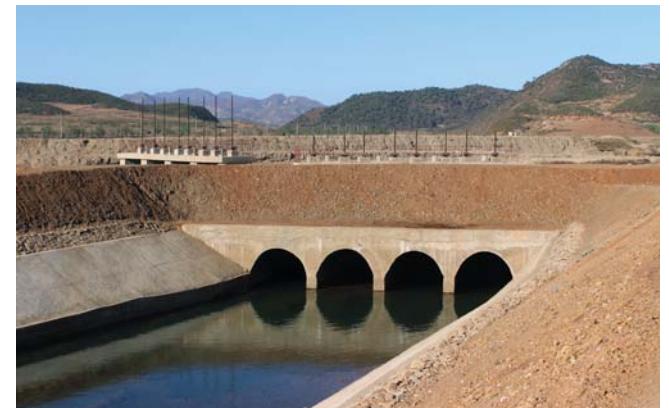
주체91(2002)년에 길이가 150여㎞나 되는 개천-태성호물길이 완공되였으며 주체94(2005)년에는 백마-철산물길이, 주체98(2009)년에는 미루벌물길이 건설되였다. 지난해에는 또 하나의 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인 황해남도물길이 완공되여 서해곡창지대의 농업생산토대가 강화되였다.

수십개의 물길굴과 770여개의 각종 구조물, 대규모용수잠관들을 가진 황해남도물길은 길이만 하여도 190여㎞로서 조국의 자연흐름식관개망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할수 있다.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된 황해남도물길건설은 주체101(2012)년 1월에 착공식을 선포한 때로부터 5년만에 1단계공사가 끝나고 3년 남짓한 기간에 2단계공사가 결속되였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만 놓고보더라도 저수지언제와 200여리의 물길, 물길굴과 잠관, 암거를 비롯한 수백개의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건설이였다. 특히 봉천호언제건설은 물길공사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으로서 2년이 걸려야 한다던 공사과제였다. 그러나 공사에 동원된 건설자들은 수백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1년만에 언제건설을 질적으로 끝낸데 이어 나머지공사과제들도 빠른 시일에 결속하였다.

황해남도물길이 완공됨으로써 벽성군과 강령군, 옹진군과 봉천군, 청단군의 드넓은 논밭과 새로 개간되는 룡매도간석지 등에 관개용수를 대주는 자연흐름식관개망이 형성되게 되였다.

하여 해마다 양수동력용전력과 많은 양수설비들을 쓰지 않게 되였으며 재령강, 레성강하류지역의 큰물피해를 미리막아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 되였다.

현재 조국에서는 황해남도물길을 완공한데 이어 청천강-평남관개물길건설과 황주긴등물길건설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농업성 물길건설관리국 부국장 리영국은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은 국토를 보호하고 대지의 면모를 일신시킬뿐아니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대자연개조사업이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김지성

완공된 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인 황해남도물길의 일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새 무장력의 탄생

1932년 봄은 세계를 뒤흔드는 사변들로 하여 매우 소란스러웠다. 만주대륙을 강점한 일제는 손중산의 국민혁명에 의하여 밀려난 청나라의 마지막황제 부의를 내세워 괴뢰만주국을 조작해냈다. 일본의 어용선전기관들과 중국, 만주의 친일적인 출판물들은 때를 같이하여 《오족협화》, 《왕도락토》건설을 부르짖으며 만주국을 찬양하였고 아세아와 세계의 진보적인 여론은 이를 강력히 반대배격하였다.

세계의 이목은 9.18사변의 발발원인과 그 책임을 해명할 사명을 지니고 방금 일본에 도착한 국제련맹조사단의 활동에 쏠리고있었다.

영국 추밀원고문관 릿든 경을 단장으로 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등의 렬강대표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일본천황의 접견을 받고 수상, 륙군상, 외상까지 만난 다음 중국에 건너와 장개석, 장학량과 회견하는가 하면 만주에 나타나 관동군사령관 혼죠중장도 만나고 9.18사변 발발현장에 대한 시찰도 진행하였다. 일본측과 중국측에서는 서로 릿든조사단을 자기편에 끌려고 접대, 환영경쟁에 열을 올리였다. 조사단이 진상을 밝혀내고 국제련맹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일본이 만주에서 철병할지도 모른다는 억측이 정계, 사회계와 보도계는 물론, 정치에 민감해진 소학생들과 마실방 늙은이들의 입에서까지 오르내리였다.

그러나 안도지구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있던 우리는 그런 억측이나 뜬소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군사훈련에만 열중하였다. 소사하 부녀회원들이 매일같이 점심밥을 함지에 담아 이고 토기점골등판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3월 중순경에 안도에서 동만의 여러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소조의 지휘성원들을 위한 단기훈련(단기강습)을 조직하였다. 지방들에서 20명 가까운 지휘성원들이 소사하 토기점골로 모여들었다.

단기훈련은 2일간 진행되였는데 첫날에는 리론강의를 하였고 다음날에는 동작훈련을 하였다. 나는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문제를 가지고 정치학습에 출연하는 한편 유격대의 생활규범과 활동준칙에 대한 강의도 하였다. 군사훈련은 주로 박훈이 맡아 지도하였다. 우리는 그때 그 강습에서 대렬동작이나 무기분해결합법과 같은 초보적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습격, 매복조직과 같은 전술적문제에로 훈련을 점차 심화시켜나갔다.

안도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본부로, 중심으로 되였다.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에서 공작원들과 통신원들이 우리와의 련계를 지으려고 소사하로 자주 찾아왔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한입건너 두입건너 국내에까지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듣고 조선과 만주각지에서 20살안팎의 열혈청년들이 사선을 헤치며 안도에 모여와 참군을 요청하였다.

변달환이 입대를 지망하는 오가자의 청년들을 8명이나 데리고 안도로 나오다가 일본군경들에게 체포되여 감옥으로 끌려간것도 바로 이무렵이였다. 해방직후 나를 찾아왔던 변대우로인은 아들이 참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해동안 속절없는 감옥살이를 한데 대하여 몹시 아쉬워하였다.

간도 여러 현들중에서도 특히 연길지방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찾아왔다. 연길지방에는 적의 통치기관들과 폭압수단들이 집중되여있었고 밀정망이 발달되여있었다. 1932년 4월초에는 라남19사단소속의 38련단 75련대를 기간으로 하고 포병, 공병, 통신병으로 증강된 이께다대좌휘하의 간도림시파견대가 동만지방 《토벌》을 목적으로 두만강을 건너 연길을 비롯한 간도일대에 쓸어들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그 고장 지하조직에서는 참군을 요청하는 청년들을 안도로 많이 보내주었다. 조직의 추천과는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년들도 많았다.

돈화의 진한장도 호진민(호택민)이라는 중국청년을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다. 호진민은 화룡에서 사범학교 교원을 하던 사람이다.

어떤 날에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구국군이 도중에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무리로 학살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동북자위군, 반길림군, 항일구국군, 항일의용군, 산림대, 대도회, 홍창회와 같은 형형색색의 반일부대들이 많았다. 반일부대라는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 항일구국의 기치를 들고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온 애국적인 군인들과 관리들 그리고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족주의군대를 말한다. 이 부대들을 통털어 구국군이라고도 불렀다.

만주지방의 반일부대가운데서 유명한것으로는 왕덕림, 당취오, 왕봉각, 소병문, 마점산, 정초, 리두의 부대들을 들수 있다.

동만에서 제일 큰 반일부대는 왕덕림부대였다. 왕덕림은 한때 목릉과 수분하일대의 밀림속에서 아무런 주의주장도 없이 《록림호걸》의 토비생활로 청년시절을 보내다가 부하들을 이끌고 장작상에하의 길림군에 편입되여 정규군의 외모를 갖춘 장교로 된 사람이다. 그는 9. 18사변전까지 구길림군에서 3려단 7련대 3대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민간에서는 그의 대대를 《구3대대》라고 불렀다.

일본군대가 만주를 침공한 후 그의 상관이였던 려단장 길흥이 투항하여 관동군사령관을 만났다. 그는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길림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였다.

자기 상관의 반역행위에 분개한 왕덕림은 즉시에 반변하여 항일구국을 선언하였다. 그는 5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 중국 국민구국군을 조직한 다음 오의성을 전방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에 대한 항전을 개시하였다.

라자구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간도지방의 적을 견제하면서 후날 우리 유격대와도 피의 인연을 맺은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 공헌영은 모두 왕덕림의 충실한 부하들이였다.

남만의 산간지대들에서는 당취오의 자위군이 활동하고있었으며 흑룡강성일대에서는 마점산부대가 북상하는 일본군에 저항하고있었다. 안도의 산간오지로 밀려든것은 오의성의 휘하에 있는 우사령부대였다.

이 부대의 드살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보았으며 조선사람들이 만주대륙에 일제침략군을 끌어들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쐐기를 박느라고 리간질을 계속하는데다가 5.30폭동과 만보산사건에서 받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그때까지도 중국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고있었다.

구국군의 완고한 상층은 조선민족과 중화민족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꼭같은 재난과 불행을 강요당하고있는 피압박민족이며 중국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될수 없는것처럼 조선사람들도 일제의 개로 될수 없으며 중국사람들이 조선인민의 적이 될수 없는것처럼 조선사람들도 중국인민의 원쑤가 될수 없다는것을 리해할만 한 정치적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고있었다. 그것은 구국군의 상층부가 대부분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구국군의 상층부는 조선사람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파쟁군이며 파쟁군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제나름의 공식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의 청장년들을 가차없이 박해하고 학살하였다.

도시들과 벌방지대에서는 일본침략군이 살벌하게 돌아치고 일본군이 채 점령하지 못한 농촌들과 산간지대들에서는 수천수만명이나 되는 구국군들이 길목을 지키고서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구국군의 적대행동은 청소한 우리 유격대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난관으로 되였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청년운동의 력사를 전하는 곳

수도 평양의 만경대구역에는 청년운동사적관이 있다.

사적관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주체105(2016)년 1월에 개관되였다.

사적관에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사업을 중시하시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력사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이 매 년대기별로 전시되여있다.

사적관은 총서홀과 15개의 호실, 대형반경화실, 선물보존실, 콤퓨터열람실 등으로 되여있다.

총서홀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이 색조각상으로 모셔져있다.

여러 호실에는 일찌기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신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 사진들이 전시되여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신 영상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와 함께 청년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도록 이끌어주신 내용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진문헌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뿐만아니라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많은 청년들이 탄광과 광산, 철길과 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곳으로 스스로 달려나가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전시물들도 있다.

특히 혹한속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우는 청년들의 모습을 형상한 대형반경화는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시기 사적관으로는 해마다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찾아왔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사적관을 참관하고 《여기서 받은 감동이 정말 크다. 우선 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조선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청년들을 귀중히 여기고 중시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기에 조선청년들이 이룩한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웅장한 사적관까지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들여 세워놓지 않았는가. 정말이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영웅의 넋을 이어가는 돌격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에는 강호영청년돌격대가 있다.

강호영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 25-1953. 7. 27.) 부상으로 두다리와 두팔을 쓸수 없게 되자 수류탄을 입에 물고 육탄이 되여 적들을 쳐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이다.

돌격대원들은 영웅의 넋을 이어 석탄증산으로 조국을 받들어갈 일념으로 돌격대명칭에 그의 이름을 달았다.

그때부터 돌격대는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끝내였으며 탄광의 어렵고 힘든 일터에서 선봉대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지난해의 80일전투에서는 복구굴진계획을 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여 탄광의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대장 강금철은 《우리 돌격대가 거둔 성과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강호영영웅이 육탄이 되여 조국을 수호한 그 넋을 이어가려는 우리 돌격대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관통되였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80일전투기간 강호영청년돌격대의 작업조건은 탄광의 다른 돌격대들과 대비해놓고 볼 때 그리 좋지 못하였다. 그리고 몇해어간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경험이 부족한 나어린 대원들이 돌격대의 과반수를 이룬것으로 하여 기술기능수준도 뒤떨어져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종전에 비해 두배나 되는 생산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강금철대장을 비롯한 돌격대의 지휘관들은 자신들부터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원들을 이끌었으며 여가시간에는 대원들의 기술학습을 적극 방조하였다.

이것은 곧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강성갱의 복구굴진막장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버력처리속도이자 굴진속도이라는것을 자각하고 능률적인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교대당 탄차순환회수를 최대한 높이였다.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전교대가 다음교대를 도와주는 기풍을 적극 발양해나갔다. 막장이 붕락되여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게 될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돌격대원들은 어려운 과업을 솔선 맡아 돌격전을 벌려 예견했던 날자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끝내였다.

굴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는 돌격대원들

이외에도 장마피해로 최소한 열흘은 걸려야 한다던 30여m구간의 죽탄처리작업도 5일간이나 앞당겨 끝냈다.

영웅의 넋을 이어 80일전투기간 탄광의 석탄증산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헌신한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실력있는 집단

최춘화

참고화상동시현시와 지정된 색넘기기

시각정보처리강좌 교원들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 시각정보처리강좌는 국내학계에서 실력있고 권위있는 강좌이다.

한것은 이 강좌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각정보처리학문을 개척한 유일한 강좌이며 내놓은 연구성과 또한 크기때문이다.

강좌장 최춘화는 시각정보처리강좌의 초대강좌장으로서 관록있는 녀성박사이다.

강좌는 지난 기간 우리 식의 종합적인 영화편집공정체계를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정보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체100(2011)년 강좌는 전문단위로부터 영화편집에서의 수자식색해석조절문제를 해결해줄데 대한 의뢰를 받게 되였다.

당시 영화편집에서는 색해석조절을 수입산 전기상사식설비로 하는것이 기정사실화되여있었다. 장치의 가동여부와 특성에 따라 편집시간이 좌우되였는데 그 설비도 어느 한 나라 회사의 독점물로 되여있었다.

강좌는 장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던 기존관념을 깨뜨리고 콤퓨터를 리용하여 수자식으로 해결할 착상을 하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연구과제에 담긴 학술적난도와 프로그람작업량은 실로 방대했지만 이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연구를 시작해서 단 몇달만에 강좌의 교원들은 수입설비의 모든 부분기능들을 반영한 수학적모형을 완성하였으며 예비시사기능까지 첨부된 새로운 수자식색해석조절체계를 개발완성하였다.

강좌의 교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영화편집의 속도와 질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이들은 난도가 높은 음성화상동기불일치검색프로그람, 동화상자료기지구축과 검색프로그람, 초고해상도 흑백색영화자료를 천연색으로 넘기는 체계 등을 개발하여 수자식영화편집에서 시간을 훨씬 단축하였고 정확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병렬렌더링체계를 개발하여 렌더링시간을 훨씬 단축하였으며 콤퓨터망보안과 홈페지관리체계도 구축함으로써 영화편집의 편리성과 안전성도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그들은 연구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지능사진색화체계를 3달만에 완성하였으며 지금은 지능동화상색화체계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최춘화강좌장은 《아무리 어려운 첨단연구과제라도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결코 어려운것이 아니다. 그 결심이란 곧 우리 과학자들의 민족적자존심에서 출발하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강좌교원들은 모두가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으며 최춘화강좌장은 2019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가 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리정

수 기

언제나 곁에 있어

이제 얼마 안 있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리게 된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당의 품속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해온 지난날들이 돌이켜진다.

내가 일하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조국에서 해방후 처음으로 인민을 위하여 세운 방직공장이다.

우리 공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발자취가 새겨져있다.

내가 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것은 주체86(1997)년이였다.

그때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시기여서 많은 공장들이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를 맞이한것은 숨죽은 공장이 아니라 고르롭게 울리는 직기들의 동음이였다. 바로 이 벅찬 곳에서 나의 직포공생활은 시작되였다. 눈에 익고 손에는 설다고 처음에는 끊어진 실을 잇는것이 잘되지 않았다.

수십번을 반복하다나니 손에는 물집이 생길 정도였다. 힘들고 주저앉고싶을 때가 있었지만 나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방직공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새기며 밤새워가며 숙련했다.

밥상을 마주하고도 훈련하고 뻐스에 앉아서도 열심히 손을 놀렸다. 꾸준한 노력끝에 5년만에는 기능공으로 되였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에도 들어섰다.

내가 더 많은 천을 짜기 위해 정량을 뛰여넘을 결심을 하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주체98(2009)년 7월이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일 잘하는 직포공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고무해주시였으며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나는 그들처럼 일하기 위해 작업이 끝나면 공장구내의 나무들사이를 오가며 합리적인 순회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고 직장의 리정순영웅을 찾아가 다추다기대운동을 벌릴 때의 경험을 듣기도 하였다. 오랜 직포공들은 빠른 순회방법을 찾을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나는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착상하였고 주체101(2012)년부터 다기대를 다루어 4년분, 5년분, 6년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차례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여 만부하로 돌아가고있는 공장을 보니 힘이 난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이를 일터에 모신 긍지를 안고 나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천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 나는 조선로동당원으로 되였고 전국경공업대회와 당창건 70돐, 75돐 경축행사들에 대표로도 참가하였다.

주체108(2019)년에 나는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직포공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꿈만 같은 현실은 언제나 곁에서 생의 걸음걸음을 어머니의 손길로 이끌어 내세워준 당조직과 집단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성장하며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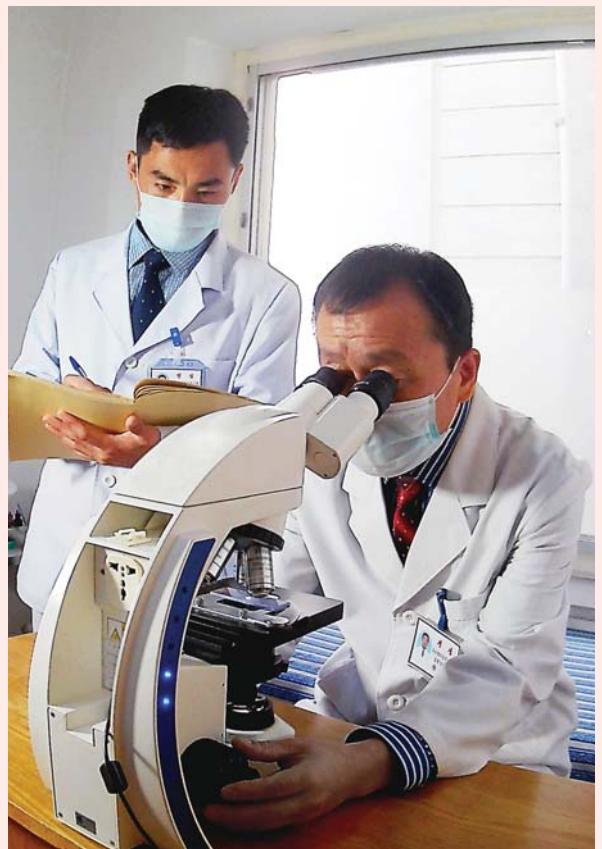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견방
종합직장 직포공 한명희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사람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병리조직검사실에는 의사가 몇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림상의사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들의 역할을 떠나서 유선종양환자들의 생명에 대해 담보할수 없다.

유선종양환자치료의 척후병이라는 책임감을 언제나 안고있는 그들이다. 그들은 현미경으로 유선종양환자들의 병리세포나 병리조직을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옳바른 수술대책을 세우고 치료약재를 선택해주고 치료방향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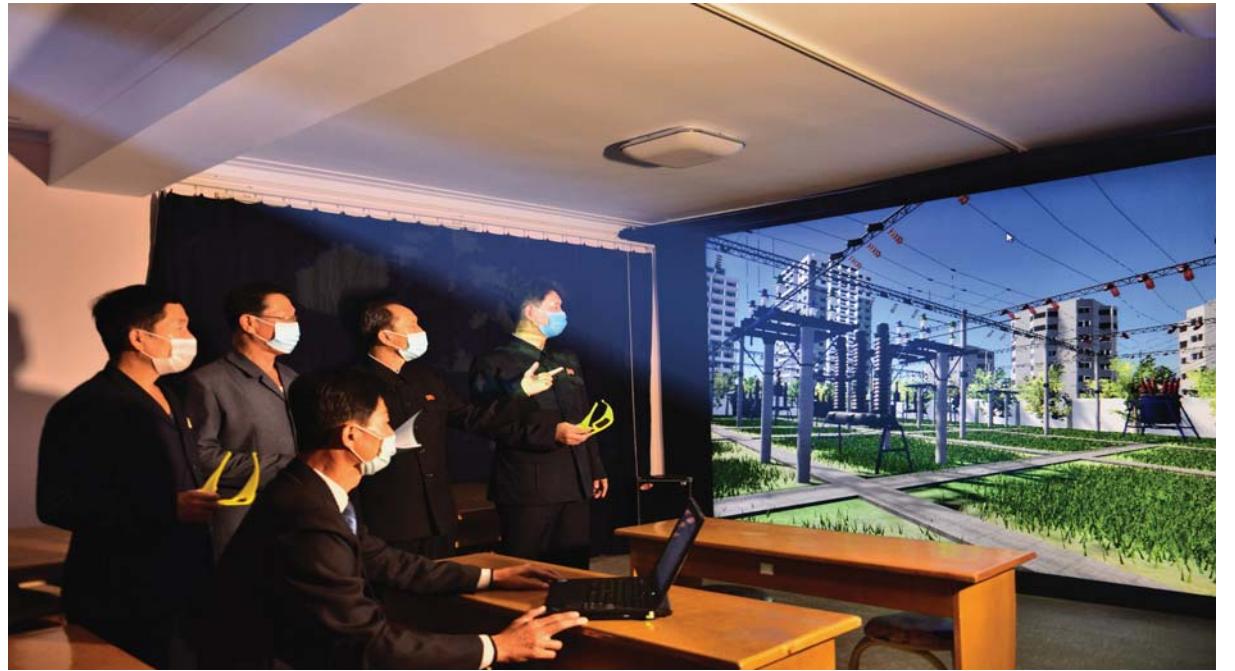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 길지 않은 말속에 깃들어있는 병리의사들의 수고에 대해 다는 알지 못한다.

실장 손철호는 실의 의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눈에 크게 뜨이지 않는다. 하지만 종양환자들의 병상태를 진단하는데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7년전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할 당시 심장외과의사에로의 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유선병리의사가 된 손철호이다. 그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가 반드시 이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실력을 다지고 경험을 쌓아왔다.

그 나날 그는 비록 현미경으로 병을 진단하지만 그 정확성여부는 병리의사들 바로 자기들의 책임성과 실력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현미경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환자들의 병상태를 조기진단한다.

표본을 만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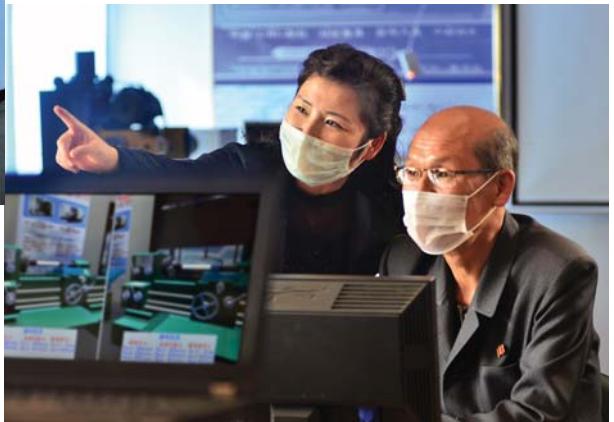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

3차원가상현실을 통한 교수방법을 토론한다.

평양공업대학은 평양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실천형 기술인재들로 키워내는 공장대학이다.

방직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콤퓨터공학과를 비롯하여 11개의 학과들을 가지고있는 대학은 주체49(1960)년 9월 1일에 창립되였다.

지난 60여년간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내밀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대학에서는 다기능화된 CAD/CAM실습실 등 가상증강현실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실험실습실들을 꾸려놓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배합하여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실시간교수검열체계를 확립하여 교육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고 전자기회로리론종합실험대, 4축CNC후라이스반을 비롯한 각종 실험기구들과 실습설비, 교육용다매체편집물들도 제작하여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높이고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교원들속에서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특히 공장대학의 특성에 맞게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생산실천에서 써먹을수 있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이 과정에 3D동화상기술과 Unity프로그람기술을 리용한 실리있는 교수방법이 도입되였고 100여개 과목에 수천건의 새 교수방법이 창조되여 원리교육과 교육의 통속화수준이 보다 높아지게 되였다.

교육과 실천을 결합해나간다.

여러가지 프로그람들을 강의에 리용하기 위해

교원들이 지닌 높은 실력은 그대로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이어지고있다.

현재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킨 대학에서는 해마다 기술인재들을 배출하고있다. 그들중에는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는 기술일군들과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로 생산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장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간다.

최근년간에만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리용하고있는 철편직기를 공기분사식직기로 개조하면서 조종장치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제작한것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대학의 졸업생들과 학생들이 실현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만 해도 백수십건에 달한다.

대학부학장인 박사 부교수 김관국은 《우리는 날로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부단히 높여 학생들을 현대과학기술과 실천능력을 갖춘 기술인재들로 키워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실력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그이기에 《유선암때 림파절전이와 생존률에 대한 병리형태학적연구》라는 론문도 발표할수 있었다.

의사들인 김광철, 김문혁, 김류철도 실장 손철호의 사심없는 지도와 방조속에 오진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여러모로 강구해나갔다.

실에서는 병리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고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한 의사들의 경험토론회가 자주 진행되고있다.

그가운데서 가장 실효가 높은것은 현미경의 화상자료를 콤퓨터화면에 현시하여놓고 진행되군 하는 협의회이다. 서로의 의견과 경험이 교환되는 속에 유선종양환자들의 확진률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고 실력이 높은 의사들의 경험이 제때에 일반화되였다.

유선병리조직검사실의 의사들은 환자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선차적이면서도 책임적인 사업이라는 의무감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재교육

평양시적으로 대동강구역의 보통교육수준은 높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대동강구역은 해마다 상급학교입학률은 물론 전국학과경연들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학생들의 실력은 교원의 자질에 정비례한다고 볼 때 교원들의 자질을 책임진 대동강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 지도교원들의 역할이 주목을 끈다.

이곳 김창숙소장은 《시대가 발전하고 지식의 갱신주기가 빨라지는 오늘날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문제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만큼 이 사업을 맡은 우리 지도교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여러가지 실기를 통한 외국어강습

강습소에서는 교양원,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정기적인 강습과 원격재교육을 책임적으로 맡아 수행하고있다.

교종별교수준비에 필요한 다매체교수지원프로그람들을 갱신하고 실천실기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시험방법을 새롭게 완성하는 등 지도교원들은 현직교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교수참관도 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중시하여 새로운 교수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학교들에서 다양한 교수방법들이 많이 창조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이와 함께 본보기를 창조하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구역관내 현직교원들의 교수자질을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종전과는 달리 한두명의 교원이 아니라 분과를 본보기로 하여 교수방법을 창조하게 하고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대동강구역 릉라고급중학교의 생화학분과에서는 지난해에만도 분과교원들의 집체적지혜와 노력으로 수십건의 가치있는 교수방법들을 내놓았다.

강습소에서는 해마다 신입교원들에 대한 10일강습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강습기간에 신입교원들은 세계교육발전추세자료들과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분석, 종합해보면서 자기식의 교수방법을 도출해내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습소의 강습내용은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여서 교원으로서 첫발을 뗀 우리 신입교원들이 빨리 성장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에 새로운 교육환경인 영어학습홀이 꾸려져 학생들의 외국어실기능력을 높여주는데 이바지되고있다.

총 9개 활동구획으로 나뉘여져있는 영어학습홀은 가상증강현실프로그람과 음성인식프로그람이 도입되여 학생들이 각이한 정황과 환경속에서 영어실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외국어분과장 손춘금은 《학교의 영어학습홀은 강습을 마친 분과의 신입교원들의 착상에 의해 꾸려진것이다. 아직은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신입교원들의 자질을 우리는 다시한번 평가해야 할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 평

도처에 일떠서는 양묘장들

강원도양묘장

라선시양묘장

조국에서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2단계목표수행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산림복구전투 2단계(2018년-2024년)과업은 1단계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전국의 모든 산들에 대한 나무심기를 완전히 끝내는것을 기본목표로 하고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자면 대량적인 나무모생산을 따라세워야 하며 그 담보로 되는 양묘장들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하여 각지에서 더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할수 있는 양묘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이미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이 본보기양묘장으로 건설된데 기초하여 각 도들에서도 양묘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강원도양묘장이 완공된데 이어 함경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 라선시에 양묘장이 건설되였으며 다른 도들에서도 양묘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완공된 양묘장들에는 종자선별 및 파종장, 수지경판온실, 야외재배장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그리고 통합생산체계가 자체의 실정에 맞게 구축되고 종자선별로부터 파종, 나무모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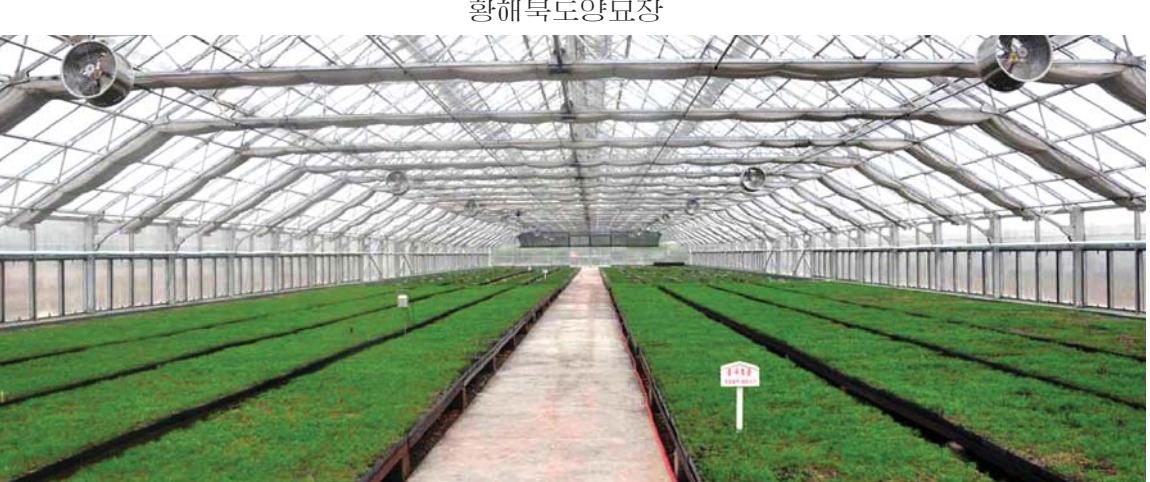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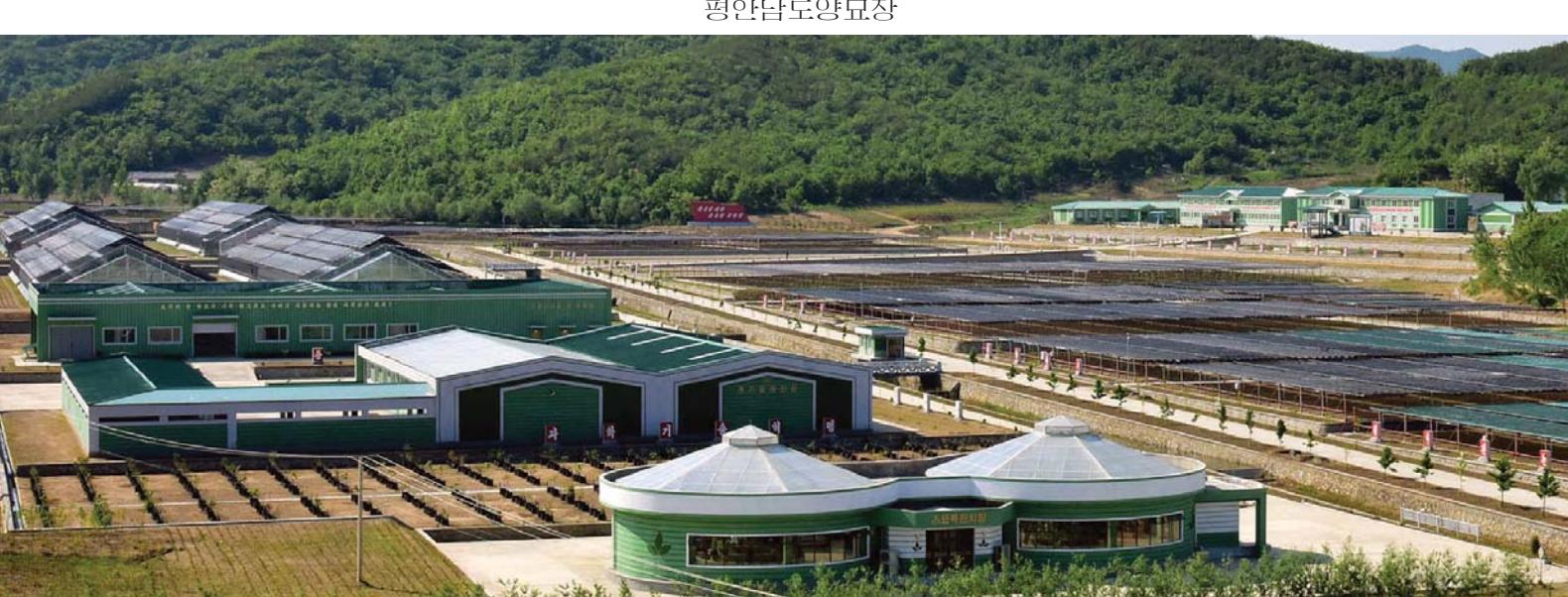
지금 양묘장들에서는 나무모를 대량생산하고있다.

함경북도양묘장에서는 2회전에 의한 나무모생산을 적극 내밀어 년간 2천만그루를 생산하고있다.

황해북도양묘장에서는 나무모생산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한편 나무모생산을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잣나무와 밤나무, 머루, 다래와 같은 산열매나무모생산에 모를 박고있다.

남포시양묘장에서는 종업원모두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양묘기술에 정통하고 구현해나감으로써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고있다. 이와 동시에 나무모의 영양관리, 생태환경보장, 병해충구제 등의 사업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사름률을 높이고 튼튼한 나무모생산을 늘이고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은 다른 도, 시양묘장들과의 경험교환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나무모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있다.

지금 양묘장건설은 중앙과 도를 벗어나 시, 군에로 확대되고있다. 평안남도 문덕군에서 건설한 나무모온실은 지금 도안의 시, 군들의 모체양묘장들에 일반화되고있으며 양묘장들의 능력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되고있다.

김명철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총국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양묘장들은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애국의 마음에 의해 건설된것이다. 이런 드높은 열의에 의해 가까운 앞날에 산림복구 2단계사업은 성과적으로 결속될것이며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조국의 산들은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황해북도양묘장

평안남도양묘장

생활오물을 재자원화하여

조국에서 재자원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양시 각 구역의 도시미화사업소들에서 환경오염을 막으면서도 생활오물을 재자원화하여 구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있다.

평양시교외에 자리잡은 모란봉구역도시미화사업소 오물처리공장이 이 사업에서 앞서고있다.

주체106(2017)년에 건설된 공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여러 생산공정들을 꾸려놓고 많은 건재품들과 기초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블로크는 생활오물에서 나오는 탄재를 회수하여 석회카리와 혼합하고 거기에 페설물처리용첨가제를 넣어 만들고 있는데 세멘트로 성형한 블로크만큼 강도가 높고 원가도 적어 실리가 크다.

공장에서는 파수지와 파지로 각종 규격의 수지관과 판종이들도 생산하고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도시오물처리에서 난문제로 되고있는 각종 음료수병, 기름통 및 포장용기와 같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라트(PET)수지페기물의 재자원화를 실현하여 벤졸, 에틸렌글리콜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초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품질감독기관들에서 확인한데 의하면 공장의 제품들인 에틸렌글리콜과 벤졸농도는 97% 이상이다.

공장에서는 재자원화에 의한 환경오염문제에도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곳 기술원 김광철의 말에 의하면 페수류출량은 극히 적은데 이 페수는 소석회로 중화하여 배출시키고있으며 열분해과정에 생기는 약간의 유해가스는 연소장치를 거쳐 배출되기때문에 2차오염문제가 산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에 공장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을 리용한 부동액생산공정도 갖추어놓고 생산을 진행하고있는데 제품의 질이 좋고 그 수익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재자원화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생태를 마련하려는것이 이들의 지향이다.

블로크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유휴자재를 리용하여 수지관을 생산하고있다.

자동차부동액을 생산하고있다.

조선속담 (융통성)

－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

무슨 일에서든지 빠져나갈수 있는 융통성과 틈이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 바쁘게 찧는 방아에도 손놀 틈이 있다

바삐 방아를 찧는 속에서도 손을 쉬울 틈이 있다는 뜻으로서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얼마든지 틈을 낼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사물현상을 서로 련관시켜 전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 측면만 본다는 뜻으로서 융통성이 없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 우물을 곁에 두고 목말라 죽는다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　*　*

흔한 돌로 고급건재를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 이것이 바로 최근년간 생산에서 비약적인 장성을 이룩하고있는 청진스레트공장의 비결이다.

공장의 대표적제품의 하나인 부품진주암의 생산경위만 놓고 보아도 이에 대해 알수 있다.

몇해전 어느 한 기술잡지에서 세계적으로 부품진주암에 대한 수요가 날을 따라 급증한다는것을 알게 된 공장의 일군들은 한결같이 자기 고장의 어느 한 산에 관심을 두게 되였다. 보온, 보랭, 방수, 방음, 흡음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건설과 식료, 산림과 농업부문에서 그 용도가 대단히 넓은 부품진주암의 원료가 다름아닌 자기 고장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것이였다.

문제는 그 흔한 돌을 가지고 귀한 건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모색하는것이였다.

이어 공장종업원들모두의 집체적지혜가 모아졌다. 로동자들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짬만 있으면 창의고안에 몰두하였다. 그 과정에 합리적인 분쇄립도와 소성온도, 발포압력확정문제를 비롯하여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였고 중간규모의 시험공정에서 성공하였다. 그 성과에 토대하여 공장에서는 갈탄가스발생로를 새로 건설하고 연료의 연소효률을 최대로 높여 시험단계에서 질이 높은 부품진주암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제품견본실

공장에서는 부품진주암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워 80일전투기간에만도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제품들을 보내주었다.

오늘날 공장의 제품견본실에는 어디서나 수요가 높은 부품진주암과 부품질석, 장식용굼도리유리들, 각종 지붕재들, 아크릴계칠감들, 무기질외장재들 등 품질이 높고 다종다양한 마감건재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다.

그 모든것이 진주암을 비롯한 자기 지방의 흔한 돌과 페설물로 만들어진것임을 청진스레트공장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받은 창의고안증서들과 더불어 궁지높이 이야기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유모아

껍질까지 잡수셨구려

한 총각이 길을 가다가 심술사나운 길손을 만났다.

그들은 길가의 주막집에 들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박을 먹게 되였다.

심술사나운 길손은 수박을 먹고는 껍질을 슬그머니 총각앞에 놓군 하였다.

수박을 다 먹고나니 총각앞에는 수박껍질이 쌓여있고 길손의 앞에는 수박껍질이 하나도 없었다.

심술사나운 길손은 짐짓 놀라는체 하면서 《여러분, 이 게걸든 총각을 보시오. 수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총각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나는 그래도 껍질은 안 먹었소. 그런데 당신은 껍질까지 다 잡수셨구려!》

* * *

기대되는 녀자탁구선수들

김송이

지난해 1월 뽀르뚜갈에서 진행된 2020년 국제탁구련맹 단체종목올림픽참가자격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탁구선수들이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김송이, 차효심, 김남해는 지난 시기에도 여러번 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국제탁구계에 널리 알려진 선수들이다.

김송이는 국제탁구련맹이 발표한 최신세계순위에서 조선선수들중 가장 앞선 순위에 있다.

주체98(2009)년부터 국제경기에 진출한 그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우승을 거두었다.

특히 주체105(2016)년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탁구명수라고 하는 일본의 후꾸하라 아이를 1:4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타승한 송이의 경기모습은 관중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국제탁구련맹은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의 김송이는 이번 올림픽 탁구녀자단식에 나타난 제일가는 <검은 말>이였다. 경기전과정에 김송이는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였다. 세계순위 50위에 있는 김송이가 세계순위 8위에 있는 후꾸하라 아이를 이겼다.》

그는 올림픽경기대회에 처음 참가하였지만 눈부신 경기활동으로 조선탁구계에 있어서 4번째로 되는 올림픽메달을 쟁취하였다. 메달을 쟁취한 날은 그의 생일날이였다.

이 경기성과로 그는 자기의 실력을 국제탁구계에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오늘도 여전히 국가대표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놀고있다.

차효심도 조선녀자탁구팀의 실력있는 선수이다.

그는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인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의 혼성복식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로부터 1년후 마쟈르에서 진행된 2019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녀자단식경기에서 그는 스웨리예의 마릴다 에크홀름 등 이름있는 선수들을 누르고 16강자전에까지 진출하였다.

차효심(왼쪽), 김남해(오른쪽)

외국어를 통한 어린이지능교육

어린이교육을 위한 시범교수

조국에서는 학령전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계발교육에 힘을 넣고있다.

이미 유치원들에 주산교육이 널리 도입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이와 함께 모국어와 외국어의 동시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창광유치원이 전국의 유치원들중에서 시범단위로 되고있다.

실물을 통한 교육

《유치원시기 어린이들에게 모국어와 외국어의 동시교육을 주는것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켜주는데도 좋고 특히는 그들이 앞으로 2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습득하는데서 지름길로 되기때문이다.》라고 창광유치원 원장 전창숙은 말하였다.

창광유치원에서는 지난해 4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고 인식적효과가 큰 만화영화형식의 외국어교육용편집물 《영어배우기》(1과-20과)를 제작하여 내놓았다.

편집물은 유치원, 로라스케트장, 동물원 등에서의 어린이들의 생활을 그대로 담고있어 첫 장면부터 흥미를 끌어당긴다.

이곳 교양원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대하다가 여러번 따라해보는 과정에 저도모르게 외국어에 대한 표상을 가지게 되며 앞으로 소학교단계에서 외국어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초를 닦게 된다고 한다.

분과장 윤숙은 《어린이들에게 편집물을 통한 외국어청각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해보았는데 예상외로 효과가 좋았다. 어떤 교양원들은 한달동안에 배워주어야 할 교육량을 뛰여넘어 많은 과를 배워주었는데 용케도 어린이들이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소화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외국어교육방법에 대해 토의하고있다.

유치원어린이 영어배우기의 한 장면

지금 전국의 유치원들에서는 이 편집물을 교육에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바람이 불고있는데 반향이 대단히 좋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김남해 역시 국가종합팀에서 주목되는 선수이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나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단체탁구경기를 치르자면 3명의 주력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김송이, 차효심과 함께 김남해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력으로 된다.

김남해는 차효심과 녀자복식조를 뭇고 국제탁구련맹 도전급경기대회들에서 2차례 우승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제탁구련맹 백금세계순회경기대회인 중국공개탁구경기대회에서 준결승경기에까지 진출하였다.

훌륭한 선수뒤에는 훌륭한 감독이 있기마련이다.

김진명은 주체99(2010)년부터 국가종합팀 녀자탁구책임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조선녀자탁구를 상승에로 이끌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주체105(2016)년에 우리 나라 팀이 12년만에 올림픽메달(단식)을 획득하고 15년만에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체 3위를 쟁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후에도 팀은 국제경기들에서 여러번 우승을 거두었다.

이들은 지금 팀의 더 좋은 발전을 위해 훈련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김진명감독은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타개해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상 식

선조들이 리용한 놋쟁반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선조들은 수천년전부터 청동합금기술을 발전시켜오는 과정에 놋으로 여러가지 생활제품들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놋제품들속에는 우리 선조들이 음식그릇으로 리용한 놋쟁반도 있다.

놋을 일명 놋쇠라고도 부른다.

놋쟁반은 놋으로 만든 운두가 낮은 둥근 음식그릇으로서 밑면에 높직한 굽이 달려있다.

쟁쟁 쇠소리가 나는 소반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놋쟁반이라고 불렀다.

놋쟁반은 예로부터 평안도에서 자랑하는 놋제품의 하나였다.

놋제품생산의 중심지의 하나인 평안도에서는 놋그릇을 비롯한 여러가지 놋제품들이 많이 생산되였다.

특히 놋쟁반은 평안도 정주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였다.

놋쟁반의 주성분인 구리는 위액분비를 잘되게 하고 호흡기관의 때를 제때에 씻어내며 혈압을 고르롭게 해주는 작용을 하므로 위장과 간장, 호흡기계통의 여러가지 질병들을 미리막는데 효과적이다.

평양의 쟁반국수가 더욱 유명해지게 된것은 국수감, 국수조리법, 국수맛이 좋은데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수를 담는 그릇인 놋쟁반이 민족적향취를 돋구어주면서 보기 좋은데도 있다.

이처럼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놋쟁반은 오늘도 민족적향취를 한껏 풍기며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 * *

한모금으로 느끼는 민족의 향취

조국의 음료풍속을 보여주는 옛 그림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이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오면서 고유한 민족음식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발전풍부화된 민족음식들가운데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숭늉, 식혜, 감주, 화채, 수정과, 술, 차와 같은 특색있는 민족음료들도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들인 라선시 서포항유적,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유적 등에서 음료를 담아 마시는데 리용된 여러가지 크기와 모양의 잔들이 발굴된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음료를 만들어 마셔온 력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옛 력사문헌기록에 의하면 삼국시기 술, 차 등 여러가지 음료들이 만들어져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여왔으며 당시 발전된 음료가공기술은 이웃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후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민족음료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가공방법도 보다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족음료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가공방법이 매우 쉽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셔온 민족음료들의 종류에는 숭늉, 식혜, 감주와 같이 낟알을 주재료로 만든 음료가 있는가하면 화채, 수정과와 같이 과일을 주재료로 만든 음료도 있으며 차와 같이 약용식물의 열매나 잎, 뿌리를 주재료로 만든 음료도 있다.

음료의 가공방법도 간단하다. 숭늉과 같이 밥을 지어낸 가마에 물을 부어 끓이거나 식혜나 감주와 같이 낟알로 지은 밥에 길금가루를 두고 삭혀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차와 같이 약용식물의 열매나 잎, 뿌리를 우리거나 달이는것, 보리차와 같이 낟알을 닦아서 끓는 물에 우려내는것, 화채와 같이 과일을 얇게 썰어 꿀물 등에 띄우는것을 비롯하여 손쉽게 만들수 있는 우점이 있다.

여러가지 화채들

민족음료들은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특유한 맛을 가지고 있다.

수정과는 향기롭고 달면서도 시원한 맛이 있는가 하면 보리차나 숭늉은 구수한 맛이 있다.

뿐만아니라 민족음료들은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좋은 낟알과 과일, 고려약재로 만든것으로 하여 약용 및 영양학적가치 또한 대단히 높다.

보리차는 먹은것이 잘 내려가게 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늙은이들의 원기회복에 좋은 작용을 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고유한 구기자차, 솔잎차, 감나무잎차, 국화차, 오갈피차, 찔광이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들은 갖가지 약효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인삼차만 놓고보더라도 강심강장제로뿐아니라 소화기, 신경계통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크다.

설명절음식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수정과는 소화흡수에도 좋고 술을 마신 후에 뒤탈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으며 기운이 없고 이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

감주 역시 정신적, 육체적피로를 풀어주고 소화흡수를 촉진시키며 장기능을 높여주는 좋은 음료로 되고있다.

오늘 조국의 그 어느 가정, 식당들에 가보아도 전통적인 민족음료를 마시는 광경을 볼수 있다.

조국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내려오고있는 민족음료들은 오늘 민족의 향취를 짙게 풍기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계승발전되여 조국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승길

민족음료들의 일부

새집들이를 한 강북리사람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는 그리 크지 않은 고장이다. 지난 시기 이 고장은 군의 끝에 있는데다가 교통도 좋지 못하여 사람들의 래왕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리소재지로 들어가는 길이 잘 닦아지고 살림집들과 유치원, 학교, 병원 등도 새로 꾸려져 모든것이 변모되였다.

박철수관리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뜻밖에 쏟아져내린 폭우와 강풍으로 살림집들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였지만 인민군군인들이 본래의 리소재지를 통채로 밀어버리고 새로 건설하여 지금은 도안의 군들과 리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장으로 되였다고 하였다.

더우기 리소재지마을이 일떠섰을 때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복이 깃들기를 축복해주시였다.

자연의 대재앙으로 한지에 나앉았던 사람들이 나라의 혜택으로 새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령도자의 축복까지 받은 강북리의 주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강북리 11인민반 1호동 1현관 1층 2호에 입사한 강북고급중학교 교원은 그이께서 손수 가마뚜껑까지 열어보시고 천정의 높이까지 가늠해보시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이께서 관심을 돌려주신 방바닥과 천정, 부뚜막이 얼마나 맞춤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는것이였다.

9인민반 리정원도 이번에 세간난 아들이 새 집을 배정받았다고 하면서 그 고마움이 꿈만 같아 입사를 해서도 며칠밤을 뜬눈으로 새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세칸의 살림방과 부엌, 창고 등이 살림살이에 편리하게 되여있고 메탄가스로 밥을 짓게 되여있으며 집주변엔 갖가지 과일나무까지 심어져있어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새 집이 일떠서기 몇달전만해도 도시에 시집간 딸네 집에 가겠다던 한 농장원이 이사짐을 다시 풀었다는 사실, 태여난 아들의 이름을 복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답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홍충성이라 지었다는 녀인의 말 등 새 보금자리를 편 주민들속에서는 기쁨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울려나왔다.

그런 목소리는 리인민병원과 학교, 문화회관 등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고 한다. 원수님께서 찾아오시여 사랑의 축복을 안겨주신 살림집을 대를 이어 가보로 물려주고 물려받으면서 강북리를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꾸려나가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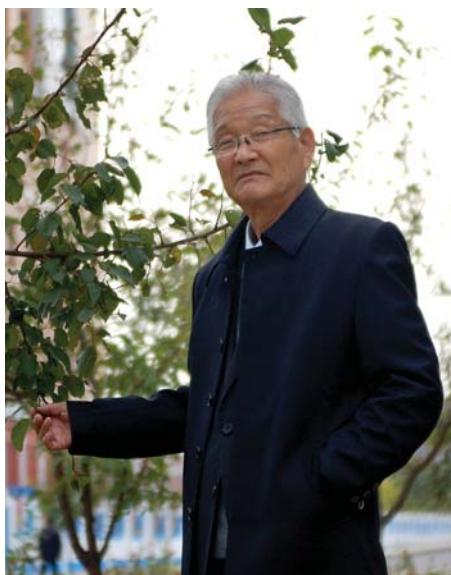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홍광남

한생을 종이연구에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연구사 교수 박사 윤원치(76살)선생은 한생을 종이연구에 바쳐오고있다.

그는 미생물처리에 의한 새로운 종이생산방법을 연구하여 나라의 종이공업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신의주경공업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종이공학연구소에 배치받은 그는 종이생산공정을 목격하면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게 되였다.

그가 찾은것이 미생물처리에 의한 종이생산방법이였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많은 전기와 석탄, 가성소다가 드는 종이생산을 흔한 지방원료로 대신할수 있었다.

결심을 품고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제일 난문제가 활성이 높은 미생물균주를 찾아내는것이였다.

그는 여러 지역들을 편답하면서 미생물균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발고가 높은 산들에 올라 나무밑둥들과 진대나무들을 주의깊게 살피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늘 산발을 오르내리군 하는 그의 행동은 산림감독원들의 《오해》도 받군 하였다.

윤원치

고심어린 노력끝에 마침내 적합한 균주들을 찾아낸 그는 여러 실험단계를 거쳐 활성이 높은 균주를 골라냈다.

연구를 심화시킨 그는 미생물을 과학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방법도 해결하였으며 벼짚, 강냉이짚, 갈을 비롯하여 어디서나 흔한 원료로 종이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방법을 완성하여 여러 종이공장들에 도입하였다.

《우리 세대주는 그 종이연구에만도 10여년세월을 바쳤습니다. 한번은 내가 그의 책상서랍을 열어본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껏 그가 타고다닌 기차표가 꽉 차있었습니다.》라고 그의 안해 강량순은 웃으며 말하였다.

현장에서

윤원치선생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활성감탕법에 의한 종이공장페수처리에 대한 연구》, 《미생물처리에 의한 낟알짚팔프생산에 대한 연구》와 같은 가치있는 여러 론문들과 《미생물공업총서》, 《특수종이화학의 기초》를 비롯한 각종 참고서들도 집필하여 과학교육발전에 기여하였다.

여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도 키워낸 그는 종이공학부문에서 권위자로 존경을 받고있다.

이 과정에 그는 교수, 박사의 학위학직소유자로 되였고 높은 급의 훈장, 메달을 받았으며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살림집도 받았다.

5년전 일본에서 사는 친척이 그의 집을 방문하고는 진짜 이 집을 나라에서 무상으로 주었는가고 몇번이나 곱씹더니 놀랍다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성공했다고 일본에서 살고있는 친척들이 전화오고 방문올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군 합니다. 연구사로서 응당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온갖 배려를 돌려주고있다고 말입니다.》라고 윤원치선생은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가족들과 함께
상식

콩팥보호와 더운물에 발담그는 시간

더운물에 발을 담그면 건강에 리롭다는데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있다.

하지만 어느때 담그는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데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콩팥을 보호하려면 21시경에 발을 담그어야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것은 이 시간에 족소음신경의 기혈이 비교적 약해지는데 이때 더운물에 발을 담그면 체온이 오르면서 피줄이 확장되여 피순환을 촉진시키기때문이다.

또한 온종일 긴장되여있던 신경이 풀리고 부하를 받은 콩팥도 충분한 휴식을 하기때문에 편안한감을 느끼게 된다.

21시경에 발을 담그면 콩팥을 보호하고 잠을 충분히 자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발담그기가 끝난 후 몇분 지나 인차 잠자리에 들어야 가장 큰 콩팥보호효과를 볼수 있다.

더운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너무 뜨거워도 나쁘며 40°C가 맞춤하다.

발담그는 시간은 30분정도가 적합하다.

그릇이 금속재질인 경우 물이 인차 식기때문에 나무로 만든 그릇을 쓰는것이 좋다. 이외에도 발을 담글 때 단삼이나 당귀, 금은화, 국화 등을 넣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　　*　　*

《미래를 위하여!》의 리념밑에

회장 고성렬

지난해 조선교육후원기금은 학생들의 새 학년도수업을 보장하는데 적으나마 이바지하였다.

조선교육후원기금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조국과 후대들을 사랑하고 교육과 미래를 중시하는 수많은 해외동포, 외국인, 단체들의 소행이 해와 달이 흐를수록 계속되고있다.

조선교육후원기금 회장 고성렬은 말하였다.

《주체94(2005)년 1월에 설립된 조선교육후원기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단체로서 지난 16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비정부단체들, 해외동포들과 함께 각급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조선교육후원기금의 활동리념이다.

이에 기초하여 기금에서는 후원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교수내용과 방법의 혁신, 학원 및 학교들의 운영 등에 대한 후원계획을 세우고 그를 성실히 리행하여왔다. 최근년간에만도 자연재해를 입은 농촌지역의 30여개 학교들을 개건보수하고 일부 대학, 학교들에 정보화설비들과 외국어시청각설비들, 문화기재들, 교육참고서들을 보내주는 한편 자동차운전모의실습실, 재봉실습실 등을 갖추어주는데 아낌없는 후원을 주었다.

또한 주체107(2018)년과 주체108(2019)년에 진행된 제16차, 제17차 아시아영어교육토론회와 제17차 아시아태평양의학교육토론회에 평양외국어대학과 평양의학대학 교원들이 참가하여 학술론문들을 발표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내용, 방법들을 교환하도록 하는데도 이바지하였다.

기금은 주체101(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학교영어교육협조의 틀거리에서 5차의 소학교영어교원강습과 해외에서 3차의 교재집필토론회를 다양한 형식으로 방법론있게 진행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협조단체들, 해외동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기금은 앞으로도 《미래를 위하여!》의 리념밑에 조국의 후대들을 위한 유익한 사업들을 더욱 다양하고도 성의있게 진행해 나갈것이다.

새로 건설할 학교형성안을 토론한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후원대상선정을 토론한다.

신평군 신평소학교

후원증서를 받은 기부자들과 함께 있는 기금일군들 주체108(2019)년 촬영

상식

조선춤

조선춤은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정서를 체현하고있다.

조선춤의 독특한 멋은 팔동작을 위주로 하면서 다리동작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몸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는데 있다.

조선춤의 팔동작에는 팔을 펴놀리는 활개치기와 같은 편동작과 굽이놀리거나 굽히는 등의 동작들뿐아니라 성격적인 동작으로서 뿌리치기, 밀기와 당기기 등 다양한 동작들이 있다.

조선춤동작들의 섬세성과 유연성은 바로 이러한 팔놀림들에 의하여 표현되며 우리 인민의 내면세계와 생활감정이 섬세하고 생동하게 형상된다.

조선춤의 률동적특징은 독특한 다리동작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굴신을 통하여 수행되는 다리동작은 강한 튐성과 부드러운 굴곡운동의 부단한 련속과정이며 이러한 하체의 탄력으로 하여 조선춤의 특징은 더욱 강조된다.

뿐만아니라 조선춤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안착된 속도와 유순한 흐름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볼수록 부드러움을 안겨준다.

조선사람의 체질과 미감에 맞는 돌거나 높이 뛰여오르는 장끼동작도 조선춤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남성무용에서 많이 형상된다.

오늘 조선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새롭게 발전해가고있다.

* * *

민족의 긍지를 안고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주체110(2021)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께 저희들의 새해 첫 인사를 보내게 되는 기회가 마련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 세계에 무서운 재앙을 몰아온 악성비루스의 전파는 조국으로 향하는 동포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그리워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겁고 열렬한 그 마음만은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난해 1월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가 행성에 울려퍼지던 그 시각 조국의 인민들뿐아니라 이역땅에 사는 동포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었을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는 불멸의 대강은 여러분의 심장을 높뛰게 하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막 용솟음친다.》

《정면돌파전, 이것이야말로 조선사람의 배짱과 기질에 꼭 맞는 공격방식이다.》

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며 조국인민들과 발걸음도 숨결도 함께 할 열의에 넘쳐있었습니다.

이렇게 새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동포여러분이였습니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새로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용기백배하여 정면돌파전을 벌려나가는 조국인민의 투쟁모습은 동포들모두에게도 커다란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그 나날 일본과 중국, 로씨야, 미국, 카나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동포들은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깊이 간직하고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 조국해방 75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비롯하여 주요국가적명절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여러 나라와 지역의 동포조직들에서는 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들로 뜻깊게 보내였습니다.

그리고 적대분자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책동에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며 정의의 투쟁에 적극 합류해나갈 의지를 담아 담화와 성토모임 등도 가지였습니다.

동포들은 악성비루스가 생명을 위협하는 속에서도 서로서로 도와가며 정을 두터이 하였습니다.

지난해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 80일전투를 벌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신심과 용기에 넘쳐 더 큰 발걸음을 내짚읍시다.

조국인민들과 해외의 동포들이 굳게 맺은 정 변치 말고 조국의 눈부신 래일을 마중하며 변함없이 애국애족의 한길을 걸어나갑시다.

부디 몸건강에 류의하여 앞으로 조국방문이 이루어질 때 반갑게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동포여러분의 건강,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바입니다.

해외동포사업국 처장 석충성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리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

이 노래는 해외의 동포들이 조국을 그리며 즐겨부르는 노래이다.

조국이란 무엇이기에, 어릴적에 뛰놀던 버들숲 우거진 고향이 있는 곳이여서인가, 선친들의 묘소가 있고 잊지 못할 혈육들과 친우들이 있는 곳이여서인가…

몸은 비록 멀리 이역에 있어도 넋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맥동쳐 우리 동포들 누구나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고있다.

그가 어디에 살건 잘나도 못나도 슬하의 자식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언제나 변심없이 따뜻한 정을 주는 어머니의 품이 해외동포들, 그대들의 조국이 아니랴.

그래서 조국에 마음을 얹은 우리 동포들은 그 격정을 붓에 담아, 시에 담아 심장으로 노래하고있다.

아래에 해외동포들이 창작한 시들의 일부를 싣는다.

장시

더 높이 휘날려라 공화국기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김영녀)

조국
불러만 봐도 눈시울 적셔지는 그 이름
목메여 부르며 띄우는 공화국기발
하늘가에 나붓기는 저 기폭은
그리운 조국에
나래쳐가고싶은 우리의 마음입니까
. . .
조국과 떨어져있어도
이 기발 있어 외롭지 않았고
비록 해외에 살아도
이 기발 있어 이 몸은
친정집 조국의 품에 안겨살았거니

생각은 깊어집니다
제 나라 기발이 없던 수난의 세월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구슬픈 인생을 이역땅에
락엽처럼 굴려야 했던
우리 동포들 아니였습니까
…
한생을 바쳐 내 나라 빛내이시고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 떨쳐주신 주석님
조국이 강하고 위대해
주체조국의 해외공민
그 떳떳하고 자랑높은 이름으로
우리는 머리를 쳐들고 삽니다
…
평양의 해외동포애국자묘
한사람 한사람 이름을 불러봅니다
최영희, 정각현, 리철재…

생전엔 조국위해 많은 일 했다고
애국자라 불러주고
사후엔 높은 국가수훈자로
영생의 모습으로
별처럼 생을 빛내준 조국
…
어머니품에 안긴듯
정든 집에 안겨있는듯
돌사진속에서 웃는 그들의 모습들
살아도 정에 살고 죽어도 정에 사는
그 품이 바로 귀중한 내 조국
. . .
아,
더 높이 날려라 공화국기여
해외동포 우리모두 심장으로 안고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기발이여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군국화야망, 재침야욕이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여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야망은 해마다 늘어나는 군사비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일본방위성은 2021년도 예산개산요구서에 사상최고인 5조 4 898억￥을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력대 최대규모라고 하던 그 전해보다도 대폭 늘어난것으로서 해외침략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공인된바와 같이 일본은 해마다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구실로 최고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하고있다.

그로 인한 일본의 군사력팽창은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가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우주와 싸이버공간에로까지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방대한 군사비가 새로운 침략부대들의 조직과 선제타격능력강화를 위한 첨단무기개발 및 구입에 투하되였다.

개산요구서의 내역을 봐도 우주와 싸이버관련비용으로 각각 724억￥, 357억￥, 탄도미싸일방위비용으로 무려 1 247억￥을 포함시켰다.

끊임없이 증대되는 군사비, 《전수방위》원칙을 벗어난 《자위대》무력의 선제공격능력강화, 공격형무력으로서의 《자위대》의 해외에로의 군사행동확대는 명백히 군사적패권을 쥐고 해외침략에 나서기 위한데 목적을 둔것이다.

하기에 지난해 7월 《도꾜신붕》은 일본에서 《방위비》가 사상최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변정세를 방위비를 늘이고 장비구입을 확대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세기 아시아대륙을 피로 물들이고 조선인민과 세계인류앞에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죄악을 감행한 일본이 또다시 치떨리는 과거의 침략사를 재현하려는것을 인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지금 주변나라들은 물론 세계가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을 경계하고있다.

일본은 침략열기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련시

백두산바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선전국 국장 김송미)

사 랑

파랗고파란 잎새엔
황금빛 가득 주고
사과랑 열매엔
빨간물 듬뿍 주며
주고 더 주고파하는
밝은 해님 크신 사랑

품

봄이면 씨앗을 품어주고
여름동안 따뜻하게 가꿔주고
가을이면 씨가 익어
굵은 열매 맺게 해주는
어머니
그 포근한 품

바 람

힘이 들고 지칠 때도
항상 내곁에서 부는 바람
잠시라도 더디게 갈가
마음을 떠밀어주는 바람
친구처럼 스승처럼
손잡아 이끌어주는 바람
깊은 밤 꿈속에서도
다정히 불러주는 바람
아, 백두산바람

*　　*　　*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본 두 제도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 미래와 직결되여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밝은 눈동자에 그 사회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여러차례의 쇼뺑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와 국제축전무대들에서 조국의 어린이들은 특별상과 1등상을 받았으며 전문가들과 관중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세상사람들은 훌륭한 연주가로 자라난 조선의 어린이들의 생기발랄한 목소리, 밝은 웃음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조국에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깊은 산골이나 외진 섬에 있는 한두명의 어린이를 위해서도 학교를 세우고 그곳으로 교원들이 찾아가고있으며 장애자어린이들도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국가적관심속에 꾸려지고 이곳에서 배운 원아들이 희망대로 대학에 입학하고있다. 또한 학생들은 각지에 일떠선 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과외교양거점들과 과외생활기지들에서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다.

한 외국인은 이러한 현실에 감동되여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언제인가 홈페지에서 조선서해의 섬마을학교를 소개하는 기사 <한 학생을 위한 분교>를 본 일이 있다. 내가 사는 서방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여서 조선을 방문하여 섬에 찾아가 세상에 없는 특권을 행사하는 주인공을 만나보고싶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

후날 나는 조선소년단원들의 행사에 참석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소년단대표들을 만나주시는 력사적인 화폭속에서 그 학생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

자그마한 등대섬의 어린이가 나라의 령도자를 만나뵈옵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현실을 보며 조선의 훌륭한 아동권리보장제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제일 큰 피해를 입는것은 어린이들이다.

특히 일본에서 어린이학대행위는 사회에 만연하는 악습들중의 하나이다.

몇해전 지바현의 노다시에서는 10살 난 처녀애가 가정에서의 폭력행위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당일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은 어린 딸애의 머리끄뎅이를 잡아 내동댕이쳤는가하면 목을 움켜잡고 뭇매를 안겼다. 소녀는 오래전부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해 영양실조증에 걸린 상태였다고 한다. 아버지에게서 무서운 폭행을 당해온 소녀는 어린이보호기관과 학교등에 찾아가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것을 애원하였지만 매번 무시당하였다. 결국 그에게 차례진것은 참혹한 죽음뿐이였다.

지난해에는 오이다현에서 한 녀성이 어린 아들의 손등을 마구 담배불로 지져 화상을 입히였는가 하면 후꾸오까현에서는 어머니가 딸의 두손을 묶어놓고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으며 마구 때린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문제는 이런 어린이학대행위가 나날이 더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3월 이 나라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데 의하면 어린이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자기 죄를 인정하였으며 그들자체도 어릴적에 모진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실토하였다.

2018년 일본경찰청이 공식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8만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았으며 이는 전해에 비해 22.4%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하기에 일본의 청소년들은 범죄와 자살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고있다. 그들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꾀임에 넘어가 범죄집단의 한 성원이 되고있으며 살인, 강도를 일삼고있다. 한편 가정불화 등으로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린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한창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배움의 꿈과 희망을 잃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여야만 하고 범죄와 타락의 길에서 헤매이며 자살을 택해야 하는 이런 사회의 현실은 미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는 세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백두산지구의 지질학적특징

백두산은 조국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든 조종의 산, 세계적인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옛날부터 선조들과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백두산탐험의 길에 올랐다. 하여 산의 형성과 지질구성, 동식물상 등이 많이 밝혀지게 되였다.

백두산은 여러 단계의 화산분출과정을 거쳤다. 화산분출작용은 중생대유라기로부터 시작하여 신생대 제4기까지 진행되였으며 이때 나온 화산분출물은 우리 나라 령역에서 수천㎢의 넓은 용암대지를 이루었다.

백두산에는 높은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인 호수인 백두산천지가 있으며 이 천지의 주변산들에는 여러차례의 화산분출과정에 이루어진 분출단면들이 잘 보존되여있다.

전문가들은 신생대 제4기 화산분출특징이 뚜렷한 백두산지구에서 독특한 지질학적경관들도 많이 찾아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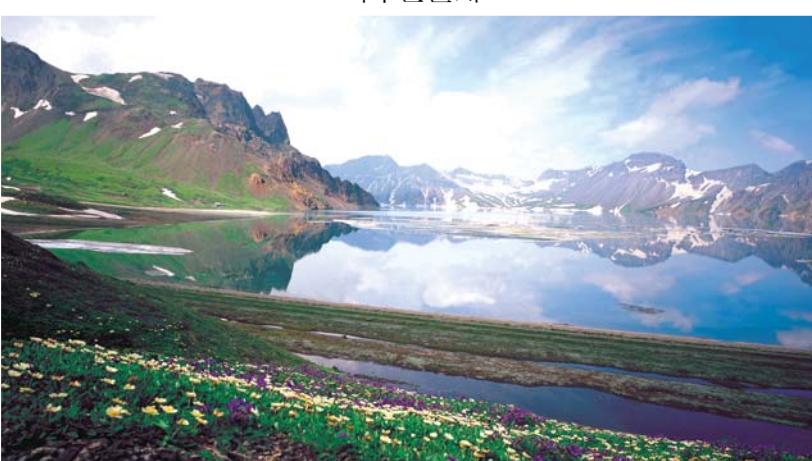
대표적으로 장군봉화산체, 백두산천지분화구, 삼지연 등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찾아낸 경관들은 수십개나 된다.

장군봉화산체는 여러 단계의 화산분출과정에 형성된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화산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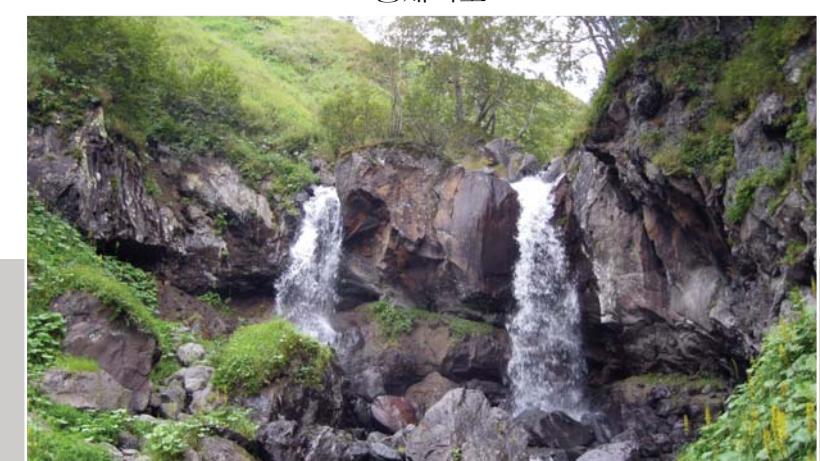
백두산천지분화구는 백두화산에서 부석이 분출된데 뒤이어 산체가 무너져 생긴 화산분화구이다.

백두산천지의 면적은 9.16㎢, 둘레길이는 14.4㎞, 평균깊이는 213.3m, 최대깊이는 384m이며 물량은 19억 5천 5백만㎥이다.

삼지연은 오늘의 삼지연부근에서 북쪽으로 흐르던 강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년전에 백두화산과 그 주변화산이 분출할 때 땅속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 막혀서 이루어진 3개의 못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화산들은 대체로 분출과정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지점들이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여 자연적인 상태에서 볼수 없는것이 많지만 백두화산은 능히 볼수 있으므로 화산활동을 각이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유리하다고 한다. 특히 화산마루의 붕괴로 로출이 많은 화산체로서 우리 나라 학자들은 물론 다른 나라 학자들에게도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백두산천지는 세계적으로 볼때 해발고가 높은 곳에 있는 화산호들가운데서 물량이 아주 많은것들중의 하나이다. 뿐만아니라 백두산지구에는 오직 이곳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동식물자원이 다양하고 화산분출과정에 형성된 독특한 지질학적경관들이 많다.

본사기자 최기철

장군봉화산체

향도봉화산체

백두산천지

천군바위

형제폭포

평안남도의 일부 지명들 (2)

평안남도의 지명들에는 고향과 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싸운 당대 인민들의 위훈을 담은것이 많다.

옛날 평안남도 양덕군 상성리의 재령산골짜기에 있는 한 마을에는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있었다.

그러나 안해의 마음은 안타까왔다. 남편이 나라의 대장부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의무만을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생각끝에 어느날 안해는 시집올 때 부모들이 준 돈과 례장으로 받은 물건들을 모두 팔아 망아지 한마리를 장만하였다.

해질무렵 망아지를 끌고오는 안해를 보고 남편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안해는 생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지금 외적들이 우리 나라를 엿보고있는데 장부가 어찌 가정일에만 파묻혀있겠나이까. 이제부터 집일은 제게 맡기고 랑군님은 망아지가 준마로 될 때까지 산에 올라가 도를 닦아 나라위해 큰일 하길 바라나이다.》

이 나라의 장부가 아녀자보다 못했다는 자책과 나라위한 안해의 말에 깊이 감동된 남편은 다음날로 망아지를 끌고 산으로 올랐다.

남편은 무술을 익히면서 망아지를 애지중지 키웠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망아지는 준마로 자라났으며 남편도 장수가 되여 외적들을 쳐부시는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때부터 이 골짜기를 남편을 준마에 태운 안해의 마음이 어린 골짜기라고 하여 장수골이라 불렀다.

평안남도 안주시 운학리의 쌍둥산과 신리마을사이에 정문이 있는 골짜기를 정문골이라고 부른다.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7명 용사들의 공을 찬양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627년 우리 나라를 침략한 외적들은 안주성을 함락하였다. 하지만 이곳 인민들은 락심하지 않고 신대익을 선두로 의병대를 뭇고 외적들에 대한 야간전, 기습전을 벌려 적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의병대에는 관군의 공격에 합세하여 성벽에 돌파구를 내야 할 임무가 하달되였으며 7명의 용사들로 결사대가 조직되게 되였다.

삼경이 되여 결사대원들은 몸에 화약을 지니고 성밀으로 다가붙었다. 하지만 적들에게 발각되여 싸움이 벌어졌으며 여러명의 대원들이 쓰러졌다.

《심지에 불을 달라. 어서!》

쓰러지면서도 결사대원들은 임무를 부탁하였다. 홀로 남은 신대익은 주저없이 화약심지에 불을 달았다. 그리고 성벽에 몸을 대였다. 순간 하늘땅을 진감하는 폭음이 울리고 성벽에 구멍이 뚫리였다. 7명 용사의 피가 스민 성벽을 넘어 의병들은 성을 단숨에 점령하였다.

그들의 공을 찬양하여 전후에 봉건정부는 골어구에 정문을 세웠으며 이때부터 정문이 있는 골짜기마을이라고 하여 이곳을 정문골로 불렀다고 한다.

이외에도 평안남도의 지명에는 인민들의 지혜가 그대로 반영된것들도 있다.

본사기자

사 화

리제현의 충심

고려사람이였던 리제현이 선효왕(고려 26대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다온적이 있었다.

왕은 원나라에 가서 한 녀인과 알게 되였다. 왕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 녀인은 멀리까지 따라와 바래주었다. 왕은 그와 헤여지기 아쉬워하면서 련꽃한송이를 꺾어주고왔다.

조국에 돌아온 그날부터 왕은 녀인이 그리워 나라일에 정신을 집중할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녀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여 견딜수 없었던 왕은 리제현에게 한번 가서 만나보고 오라고 하였다.

리제현이 원나라에 가서 녀인을 찾아가니 그는 선효왕을 그리워하다 지쳐 자리에 누워앓고있었다. 왕의 소식을 들은 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몹시 기뻐하였으나 힘이 진하여 말은 하지 못하고 겨우 붓을 들어 시 한수 써주었다.

주고가신 련꽃송이
붉고붉어 싱싱하더니
꺾은지 몇날이던가
시들기 나와 같네

리제현이 돌아오자 선효왕은 그리운 녀인이나 만난듯이 반가와하며 그의 소식을 물었다.

《그가 잘 있더냐?》

《네. 잘 있소이다.》

《그래, 어떻게 지내더냐? 아직 나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있을테지?》

《그랬으면 제 마음도 기뻤을텐데…》

《그런데 어쨌단 말이냐?》

《말씀올리기 거북하옵니다마는 제가 그 녀인을 찾아갔을 때 그는 술집에서 젊은 사내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고있었나이다.》

《뭐라구?》

《그래 조용한 틈을 타서 겨우 만나 여기 소식을 전하고 다음날 만나자고 하였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뒤 종적을 찾지 못해 여러날 헤매다 돌아왔나이다.》

《에끼, 더러운 년!》

왕은 침을 탁 뱉었다.

《내가 이웃나라 녀인에게 정붙인게 잘못이지. 그런줄 모르고 여직 그리워 속태우며 일도 제대로 못한게 분하구나!》

왕은 그후부터 녀인에 대한 생각을 잊고 속태우는 일이 없이 나라정사에 집중하였다.

몇해가 지난 뒤 왕의 생일날이였다.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차례가 되자 리제현은 앞에 나서 엎드리며 사죄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 처결하여주소이다.》

《죄라니? 그게 무슨 소린고?》

이때에야 리제현은 그 녀인이 써주었던 시를 품안에서 꺼내여 왕에게 바쳤다. 그리고 전후사연을 아뢰이며 죄를 청해 머리를 조아리였다.

녀인의 시를 한동안 들여다보고난 왕은 천천히 섬돌로 내려와 엎드린 리제현의 팔을 잡아 일으켜세웠다.

《그대가 이 시를 그때 주었더라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을것이로다. 허지만 경은 나를 사랑하여 말을 꾸미였으니 내 뜻을 이어가는데 허물을 막아주었구나. 그러니 경의 충심을 감사히 여길뿐이다.》

그는 자기가 직접 술을 부은 다음 리제현에게 주었다.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4)

황해남도의 특산 - 해주먹

먹은 벼루에 물을 두고 갈아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에 쓰이는 문방구의 한가지이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먹을 사용하여오는 과정에 그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질좋은 먹제품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해주먹은 유명하였다.

지난 시기 먹의 검은색은 주로 불탈 때 나오는 연기의 그을음을 채취하여 만들었는데 불태우는 연소물질에 따라 먹의 검은색이 연하든가 진하든가 하는 차이가 있게 된다.

해주먹의 원료는 들깨기름의 그을음이다. 이것이 다른 지방들에서 만들던 먹들과 다른 해주먹의 특징이다.

들깨기름을 그릇에 담아 심지에 불을 달고 우에 갓을 씌워놓으면 갓에 그을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향료 및 방부제와 섞은 다음 먹틀에 찍어말리워 만들었다. 해주먹은 상, 중, 하의 세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갓의 변두리에 붙은 그을음으로 만든 먹을 상, 갓의 변두리밖으로부터 중심가까이에 붙은 그을음으로 만든 먹을 중, 중심부분(제일안쪽)의 그을음으로 만든 먹을 하로 정하였다.

향료로는 사향을 제일 좋은것으로 여기였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사례절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고유한 식생활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조선민족의 식사례절은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식생활문화가운데서 식사례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득 몇해전 어느 봄날 재로씨야동포들과 함께 룡악산에 들놀이를 갔던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조국을 방문한 재로씨야동포들과 함께 조개불고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한벌 쭉 깔아놓은 조개들에 알콜을 골고루 뿌리고 불을 다니 잠시후 칙칙 소리를 내면서 꼭 다물렸던 조가비들이 벌어지였는데 그 냄새 또한 기막히였습니다.

모두가 처음보는 광경에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40대정도 되여보이는 한 동포녀인이 제일 먼저 익은 조개와 술을 부은 잔을 나이가 많은 한 동포에게 먼저 권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살아도 웃사람들을 공경하는 민족의 례의도덕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는것을.

아마 로씨야에 살고있는 동포들도 어릴적부터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잘 대접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였을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싶이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부모를 비롯한 웃어른을 정성을 다하여 모시였으며 그렇게 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웃어른들의것부터 밥과 국, 반찬을 담았으며 상을 차릴 때에는 로인들이 천천히 식사하도록 좋은 자리에 다른 상을 차려 대접하였고 그가 수저를 먼저 든 다음에야 아래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례절은 오늘도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이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고있는 며느리들은 밥과 국, 반찬을 웃어른들의것부터 담으며 그릇에 음식을 문화성있게 담고 상에 보기 좋고 먹기 편리하게 차려놓는데도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누구나 손을 깨끗이 씻고 옷차림을 단정히 한 다음 바른 자세로 밥상에 앉습니다.

웃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누워있거나 밥상앞으로 다니는것, 큰소리로 웃고 떠드는것, 숟가락과 저가락을 한손에 쥐고 먹는것, 음식을 소리를 내며 먹거나 흘리는것, 크게 웃거나 말하는것, 자기가 먹던 음식을 남에게 덜어주는것 등은 문화수준이 낮은 표현이라고 경계하고있습니다.

식사를 끝낼 때는 주인이 손님보다, 아래사람이 웃사람보다 식사를 먼저 끝내고 수저를 놓지 않습니다.

아래사람들이나 주인은 입가심을 할수 있도록 숭늉을 담은 그릇을 두손을 받쳐 웃어른이나 손님에게 올리는것을 응당한 례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이와 같이 식사례절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례의범절에 대해 잘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국땅에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적극 살려나가리라는것을 믿으며 이번호 《민족의 향기》란의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사기자 연 옥

해주먹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것은 반죽해야 할 아교의 질과 농도를 적당히 보장하는것이다. 그을음과 아교의 농도를 맞추어 배합한 후 절구에 넣고 충분히 찧어 잘 섞이게 하였다.

제작한 먹은 반드시 초목회(나무잎 또는 푸성귀를 태운 재)에 넣어 수분을 빼고 그늘에서 말리웠다.

해주먹은 색이 짙고 광택이 있으며 종이에 잘 스며들고 색이 잘 날지 않는 등 질이 좋아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리용되여왔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한성일

녀류소설가 강경애

몹시 가난했던 작가 강경애는 날듯이 기뻤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원고료가 나왔던것이다.

(이것이면 얼마간 생활을 유지할수 있겠구나. 그리고 절약하면 여러가지 옷가지들도 살수 있겠지.)

그러나 그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였다.

저녁때가 되여 돌아온 남편은 왜서인지 뚝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남편의 표정을 살피는데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긴채 문득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원고료가 나왔다지? 우리 그 원고료를 며칠째 굶으며 집에 누워있는 친구를 구원하는데 바치는게 어떻소. 우린 그래도 그럭저럭 밥술이나 먹지 않소.》

강경애는 깜짝 놀라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왔다. 그러나 왜서인지 그것보다 더 무거운것이 강경애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것은 굶고있는 친구, 일제의 압제밑에서 천대받는 우리 인민들의 피눈물나는 생활처지였다.

잠시나마 자기 하나만을 생각했던 자신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당신의 말을 고깝게 생각했댔어요. 인민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작가가 되겠나요.》

남편은 안해의 손을 굳게 잡아주며 빙그레 웃었다.

강경애는 1906년에 황해도 장연군에서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여났다.

강경애가 5살때 남편을 잃고 살길이 막막해진 그의 어머니는 최도감이라는 늙은이의 후처로 들어갔다.

어린 경애는 이붓아버지에게서 모진 구박과 학대를 받으며 가난과 설음속에서 자랐다.

그는 10살이 지나서야 소학교에 들어갔는데 글을 배우자 소설의 세계에 빠져 눈에 뜨이는 소설책들을 닥치는대로 읽었고 마을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그래서 마을어른들은 경애를 《도토리소설쟁이》라고 불렀다.

그후 18살때 평양숭의녀학교에 입학하여 선진사상을 습득하였고 3학년때에는 동맹휴학의 선두에서 싸우다 경찰에 체포되였다.

출옥후 그는 장연에 돌아가 농촌야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창작에 뜻을 두고 독서와 문학습작에 열중하였다.

그는 1931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불과 1년사이에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을 비롯하여 단편소설 《부자》, 《그 녀자》 그리고 몇편의 수필을 창작발표하였다.

결혼후 그는 남편과 함께 중국 룡정으로 들어가 집안일을 돌보면서 6~7년동안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렸다.

간도땅에서 벌어진 항일혁명투쟁은 그의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카프(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략칭)》성원은 아니였으나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인 장편소설 《인간문제》를 내놓았고 중편소설 《소금》과 같은 의의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단편소설로는 《채전》, 《축구전》, 《해고》, 《원고료 200원》, 《어둠》 등이 널리 알려져있다.

강경애는 작품들에서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는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과 비극적운명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묘사하였으며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항거의식을 반영하였다.

그는 피압박인민대중을 가장 선량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인간들로 그렸으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착취제도는 청산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의 소설은 세부묘사의 구체성과 심리묘사의 섬세성, 구성의 치밀성과 여운있는 결말, 간결하고 생동한 언어표현으로 특징지어진다.

1930년대말에 그는 건강이 나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왔으며 병환으로 나라가 해방되기 전해에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그가 해방전 조선문학사에 남긴 자욱은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　　*　　*

을밀대의 소나무

조국에는 국수인 소나무와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다.

그가운데는 소나무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데 한몫한 이야기도 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모란봉에서 평양성을 방어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

어느날 모란봉에서 왜적들과 싸우던 한 젊은 군사가 보통강근방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갔다.

평양성을 방어하기 위한 싸움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년로한 아버지가 걱정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자 왜적들과의 싸움이 성안에까지 번질수 있으니 빨리 피난을 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최로인은 《아니, 왜적들을 성안에 들어서게 한단 말이냐?》 하며 군사로서 왜적들을 칠 궁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물러설 생각부터 한다고 아들에게 된욕을 퍼부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최로인은 곧 뒤집에 사는 동갑인 박로인을 찾아갔다.

최로인은 아들이 왔다간 이야기를 하고나서 박로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의 형편이 그렇게 위태로워지는것도 모르고 집안에 앉아만 있었으니 이 나라 백성으로서 어디 도리가 됐나. 빨리 성벽으로 나가보세.》

평상시에 바깥출입도 변변히 하지 못하던 최로인과 박로인은 한손에는 지팽이를, 다른 손에는 도끼를 찾아들고 집을 나섰다.

그들이 만수대에 올라 모란봉골안을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왜적들과 싸우러 달려온 성안의 백성들로 새하얗게 붐비고있었다.

싸우는 사람들의 음식을 끓이느라고 곳곳에 걸어놓은 가마밑에서는 불길이 일고 녀인들은 동이를 이고 오갔으며 늙은이와 아이들은 군사들과 함께 돌을 안고 성벽으로 오르내리는것이였다.

로인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찾으려고 급히 모란봉으로 올랐다.

이때 군사들과 백성들의 싸움준비를 돌아보고 내려오던 평양성의 장수가 이 로인들을 보자 어디로 가는가고 물었다.

두 로인은 차오르는 숨을 몰아내쉬면서 자기들도 왜적들과 싸우러 왔으니 창이나 칼, 활 어느 하나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는 로인님들의 충의는 고맙지만 안된다고, 화살을 날리기 전에 로인들을 겨냥한 적들의 화살이 날아올것이라고 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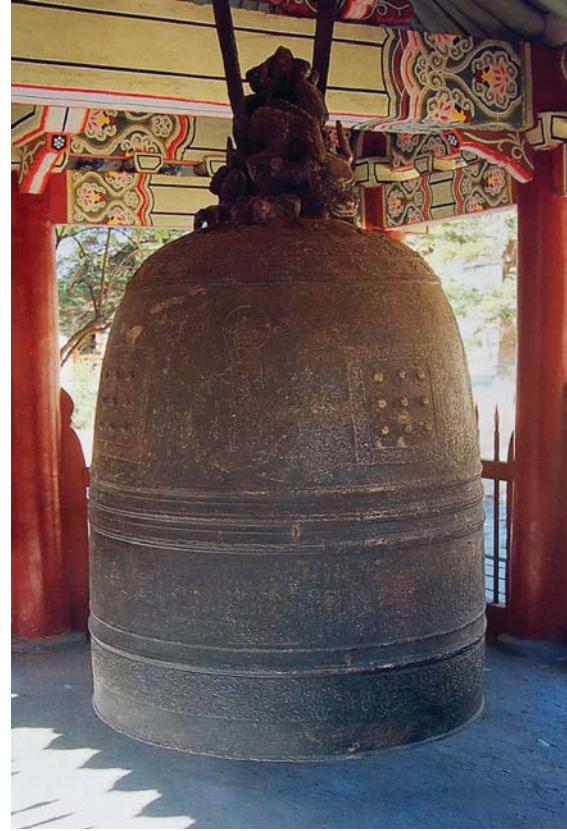
그러자 로인들은 죽어도 이 한몸으로 적들의 활 한대라도 빼앗아내겠다고 말하였다.

장수는 통쾌하게 웃더니 《로인님들이 그러면 곁에 있는 군사들의 마음이 불안해할것이오이다. 제발 올라오지 마시오이다.》라고 하였다.

장수가 여러 말로 달래였으나 로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러자 장수는 군사들을 시켜 로인들을 산기슭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로인들은 하는수없이 돌아내려오다가 다리맥이 풀리여 풀밭에 풀썩 주저앉아 쉬였다.

이때 그들의 눈앞에는 모란봉기슭의 소나무들이 펼쳐져있었다.

이것을 바라보던 박로인은 한탄조로 《이런 때 소나무들이 모두 우리 군사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있던 최로인이 갑자기 박로인의 무릎을 쳤다.

소나무들에 허수아비처럼 옷을 입혀서 군사로 만들자는 제안이였다. 그러면 적들에게서 화살을 빼앗아낼수도 있었던것이다.

생각이 일치된 그들은 다시 장수를 찾아가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로인들의 말을 듣고난 장수는 즉석에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안에 내려가 옷가지들을 거두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밤으로 적들에게 잘 보이는 을밀대의 경사지에 있는 잔솔포기들에 옷을 입히여 군사들이 지켜선것처럼 만들어놓았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왔다.

강건너편 둔덕에서 을밀대를 바라보던 왜적들은 간밤에 을밀대로 수많은 군사들이 보충되여 반격하여올 준비를 한다고 고아대면서 몰키여 활과 총을 쏘아대였다.

왜적들의 화살과 총탄이 옷을 입힌 소나무가지에 비발처럼 쏟아지자 을밀대의 소나무들은 어느 한그루도 성한것 없이 가지가 부러지고 껍질이 찢기우게 되였다.

《군사》로 가장된 을밀대의 소나무들은 온종일 부대를 교체하여 들이밀면서 쏘아대는 적들의 화살과 총탄을 반나마 빼앗아버리고 적들을 물리치는데 한몫을 담당하게 되였다.

왜적들을 몰아낸 뒤 두 로인을 비롯한 모란봉일대 사람들은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꼭꼭 을밀대에 올라 상처입은 소나무들을 정성껏 가꾸어 다시 푸르싱싱하게 자라도록 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김슬기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0)

- 유점사종 -

유점사종은 금강산 4대절가운데서 가장 큰 절이였던 유점사에 있던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종이다.

그러던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 25-1953. 7. 27.) 폭격으로 유점사가 불에 타 없어지면서 묘향산의 보현사경내에 새로 지은 종각으로 옮겨왔다.

유점사종은 처음 1469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종은 1729년에 원래것보다 크게 고쳐 제조한것이다. 유점사종은 높이가 2.1m이고 둘레가 3.9m이며 질량은 7.2t이다.

종의 걸고리는 쌍룡틀임으로 하고 종어깨에 여러 무늬를 돌려 종몸과 구분하였다. 종몸체는 겹선들을 돌려 전면을 세등분하였는데 웃단에는 4개의 유곽과 보살상을, 가운데단에는 종명을 새기고 아래단에는 보상화무늬띠를 돌렸다. 아구리부분은 별다른 장식없이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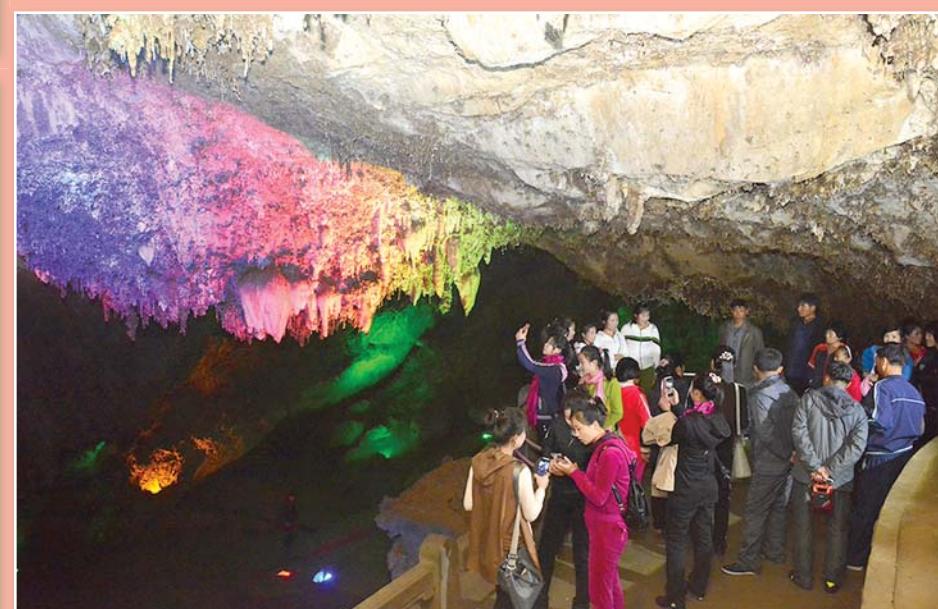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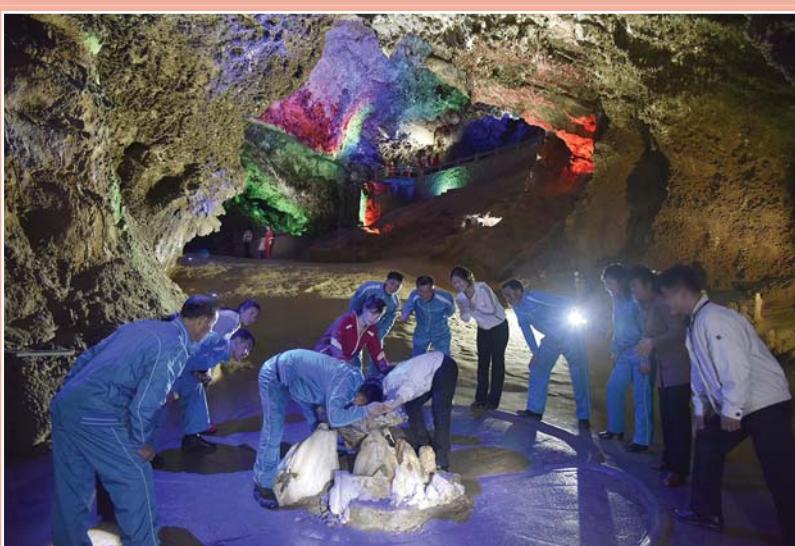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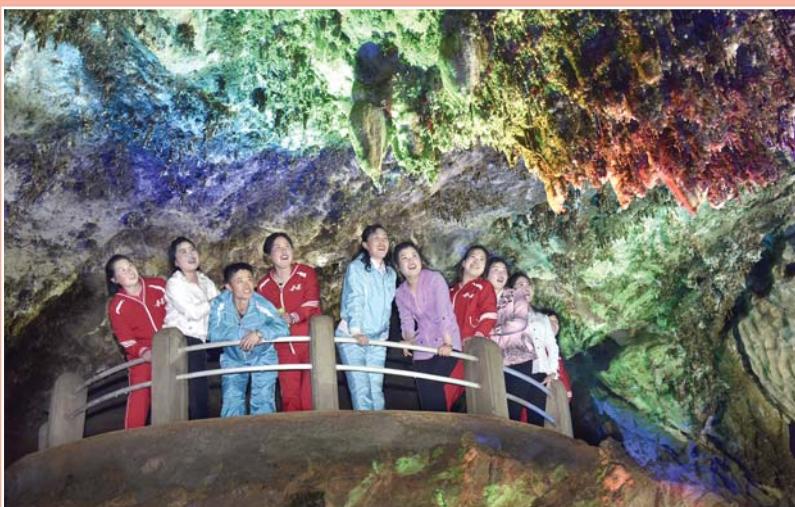
유점사종은 조선봉건왕조후기의 종연구에서 자료적가치가 크며 현재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상영

명승―룡문대굴

룡문대굴은 평안북도 구장군에 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천연동굴인 룡문대굴은 우리 나라의 석회암동굴가운데서 규모가 대단히 크다.

석회암의 석수가 천태만상의 조화를 이루어놓은 동굴에는 관망대, 만물동, 풍년동, 석화동, 백화동, 금강궁, 보석동, 룡문광장을 비롯하여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절경을 자랑하는 20여개의 명소들이 있다.

만가지 물상이 다 모인 곳이라 하여 만물동으로 불리우는 명소만 놓고보더라도 다종다양한 돌고드름들로 이루어진 박물관을 련상케 한다. 그가운데서 이채를 띠는것은 왕이 행차시에만 리용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삿갓모양의 왕관, 가재미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한데 꿰매여 달아놓은듯한 돌고드름이다. 그리고 좁은 골짜기에서 수직으로 곧추 흘러내리는듯 한 9층으로 이루어진 돌폭포는 류달리 흰색을 띠고있어 겨울철의 리명수폭포를 방불케 한다.

마치 풍년로적가리를 쌓아놓은듯 하여 일명 풍년탑이라고 불리우는 풍년동의 석탑모양의 돌순도 웅장하기 그지없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산인 금강산처럼 아름답고 전설에서 나오는 룡궁처럼 황홀한 곳이라는데서 이름지어진 금강궁의 돌고드름과 돌순, 바위들의 기묘한 생김새, 여기에 담겨진 전설적인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곳의 이채로움과 황홀감을 한껏 느끼게 된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주체108(2019)년 촬영

금강산 구정봉의 겨울   본사기자 김춘혁

우리 나라의 3대명폭포의 하나인 구룡폭포를 안고 우뚝 솟은 구정봉의 겨울풍치는 볼수록 장관이다.

구정봉의 경관은 온 산이 눈꽃과 얼음기둥으로 덮여 특이한 경치를 이룬다고 하여 개골산이라 부르는 겨울의 금강산의 일만경치를 더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2080321
http://www.korean-books.com.kp   E-mail: flph@star-co.net.kp